

석사학위논문

540년대 백제·신라 관계와
우산성(牛山城) 전투의 의미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구 남 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윤성호

540년대 백제·신라 관계와
우산성(牛山城) 전투의 의미

Baekje-Silla Relations in the 540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Usanseong

202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대학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구 남 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윤성호

540년대 백제·신라 관계와
우산성(牛山城) 전투의 의미

Baekje-Silla Relations in the 540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Usanseong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구 남 규

구남규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이재석 (인)

심사위원 박근철 (인)

심사위원 윤성호 (인)

국 문 초 록

540년대 백제·신라 관계와 우산성(牛山城) 전투의 의미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구 남 규

본 연구는 540년 백제가 고구려의 우산성을 공격한 사건을 단순한 국지 전이나 사비 천도 직후의 자신감 표출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당시의 지리적 환경과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군사 작전으로 재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산성의 위치를 비정하고, 백제군의 구체적인 진군로와 고구려의 대응 양상을 복원함으로써 해당 전투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나제 관계에 미친 파장을 검토하였다.

우선, 5세기 후반 전선의 변동과 고고학적 자료를 토대로 백제의 동계와 우산성의 위치를 검토하였다. 먼저 백제의 동계는 490년 사현성을 중심으로 괴산·청안 일대에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며, 우산성은 남한강 상류 교통의 결정적인 강원도 영월의 정양산성(正陽山城)으로 비정된다. 영월 정양산성은 5세기 후반 신라가 북진의 거점으로 축조하였으나, 496년과 497년 고구려의 집중적인 공세로 함락된 이후 고구려가 남한강 수로를 통제하고 신라의 북진을 봉쇄하는 일종의 썩기 역할을 수행해 온 곳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540년 백제의 공격은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이 맞닿은 접경지대이자, 신라가 상실한 핵심 방어 거점인 정양산성을 향했을 개연성이 있다.

다음으로 『대동여지도』와 1910년대 지형도를 활용하여 540년 당시 양국의 진군로와 전투 양상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백제군은 충돌 위험이 존재하는 충주, 단양 지역을 돌파하는 경로(진군로 A) 대신, 청안-괴산-연풍을 거쳐 황강역과 청풍, 제천을 우회하여 영월로 진입하는 경로(진군로 C-2)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영월 정양산성이 천연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진입로가 제한된 요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정규군을 동원한 전면전보다는 소수의 정예 부대를 투입하여 성의 유일한 진입로를 봉쇄하는 기습 포위 작전을 감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맞서 고구려는 평양에 주둔하던 국왕 직속의 정예 기병 5,000기를 급파하여 백제의 봉쇄망을 타격하였고, 백제군은 주력을 보존하기 위해 신속히 철수하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전투의 배경과 그 결과가 초래한 나제 관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540년 무렵 고구려는 북방 정세의 안정과 내부적인 왕권 강화를 통해 남방 전선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신라 역시 고구려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며 내실을 다지고 있었다. 백제는 이러한 고구려와 신라 간의 소강상태를 타개하고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의 점진적인 우산성을 타격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고 신라를 분쟁의 당사자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백제의 우산성 공격은 정치·외교적으로는 신라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541년 이사부(異斯夫)의 병부령 임명과 군사 조직 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투 직후 이루어진 541년의 백제와 신라 간 화친은 단순한 동맹의 강화가 아니라, 우산성 전투로 조성된 긴장 국면 속에서 백제가 주도한 능동적인 외교적 산물이었다. 이를 통해 백제는 자국에 집중된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분산시키며 대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제 주도로 조성된 인위적인 긴장과 강제성은 향후 신라가 백제를 배제하고 한강 유역을 독점하고 고구려와 통호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감을 상쇄하는 기제가 되었다. 따라서 우산성 전투는 향후 나제동맹의 완전한 파기

로 이어지는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주요어】 우산성 전투(牛山城 戰鬪), 성왕(聖王), 진흥왕(眞興王), 영월 정양산성(寧越 正陽山城), 나제동맹(羅濟同盟), 전략적 도발(戰略的 挑發)

목 차

제 1 장 머리말	1
제 2 장 5세기 후반 전선의 변동과 우산성의 입지적 성격	6
제 1 절 웅진기 대고구려 전선의 재편과 동계의 형성	6
제 2 절 우산성의 위치와 전략적 위상	18
제 3 장 540년 우산성 전투의 지리적 여건과 전개 양상	32
제 1 절 6세기 전반 충주·단양 지역의 지배양상	32
제 2 절 백제·고구려의 진군로 비정과 전황의 재구성	42
제 4 장 540년 우산성 전투의 배경과 의미	64
제 5 장 맺음말	75
참 고 문 헌	78
부 록	87
ABSTRACT	91

표 목 차

[표 1] 490-500 삼국 재이기사	25
[표 2]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삼국의 주요 교전 및 축성 현황	30
[표 3] 영월 교통로	47
[표 4] 충주 우회 경로	49
[표 5] 진군로 A·B 비교	50
[표 6] 진군로 A·C 비교	52
[표 7] 진군로 비교	53
[표 8] I·Ⅲ·Ⅳ로	59

그 림 목 차

[도 1] 496·540년 우산성 주변의 정세 변화	31
[도 2] 적성산성 시굴트렌치 6	38
[도 3] 충주댐 건설(1985) 전후 수역 변화 양상	44
[도 4] 영월 교통로	47
[도 5] 진군로 A·B	50
[도 6] 진군로 A·C	52
[도 7] 진군로 A·C-2	53
[도 8] 1910년대 황강역 주변 일대	54
[도 9] 조선 후기 역참의 분포와 간선·지선	55
[도 10] 540년 고구려 추정 진군로	58
[도 11] 정양산성의 입지	61
[도 12] 540년 추정 전황도	62

제 1 장 머 리 말

496년과 540년, 우산성에서는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두 차례 전투가 벌어졌다.¹⁾ 5~6세기는 고구려의 남진과 그에 대항하는 백제와 신라의 군사 공조가 활발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두 개의 우산성 전투를 전후하여 이러한 삼국의 대립 구도에 일정한 변화가 확인된다.

먼저 496~497년에 걸쳐 일어난 고구려와 신라의 전투 이후, 한동안 양국 간의 교전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2년에 걸친 전투가 고구려의 승리로 종결됨에 따라, 고구려의 입장에서 신라와의 전투를 중단하여도 좋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6세기 전반에는 고구려와 백제 간의 전투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백제는 540년에 고구려의 우산성을 선제공격하였고, 그리고 이듬해인 541년 신라에 청화(請和)하였다.²⁾ 사료에 따르면 백제의 화친에 대해 신라가 이를 허락(許)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시 양국의 동맹 관계가 외교적 단절이나 파기에 준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거나³⁾, 혹은 동맹을 재확인해야 할 만큼의 사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두 차례의 우산성 전투는 당시 삼국의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국가 전쟁의 원인과 목적은 사회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 물질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동된 결과물⁴⁾임을 감안한다면, 전쟁의 원인과 목적을 추적하는 작업

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496), “秋七月, 高句麗來攻牛山城. 將軍實竹出擊泥河上, 破之.”;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 5년(496), “秋七月, 遣兵攻新羅牛山城. 新羅兵出擊泥河上, 我軍敗北.”;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안원왕 10년(540), “秋九月, 百濟圍牛山城, 王遣精騎五千, 擊走之.”;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18년(540), “秋九月, 王命將軍燕會, 攻高句麗牛山城, 不克.”

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년(541), “百濟遣使請和, 許之.”

3) 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 1996, 118쪽; 박종욱, 「백제 사비기 신라와의 전쟁과 영역 변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15쪽.

4) 박대재, 『의식과 전쟁 - 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책세상, 2003, 51-52쪽.

은 역으로 당시 삼국의 정국 동향과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5~6세기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관계는 ‘나제동맹(羅濟同盟)’으로 설명되며, 그 성격은 대고구려 방어동맹(防禦同盟)으로서 규정되어 왔다.⁵⁾ 다만 그러한 성격이 일관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⁶⁾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501년을 기준으로 양국의 동맹을 각각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성격을 달리 본 견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⁷⁾

분명한 사실은 양국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협력을 유지하는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⁸⁾, 그 합치점은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남진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의 관계는 군사협력 관계에 가까우나⁹⁾, 6세기에 접어들면서 이마저도 소원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540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군사 협력이 재개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는 점에서, 우산성 전투는 공조와 이완을 거쳐 다시금 협력 국면으로 선회했던 양국 관계의 배경과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496년과 540년에 등장하는 우산성을 동일한 장소로 보느냐(同名一處), 서로 다른 장소(同名異處)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파악해 왔다.

우선 두 성을 동일한 지명으로 본 입장에서는 백제가 신라의 환심을 사고

5) 김병주, 「나제동맹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46, 1984. 동맹의 개념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통해 나제동맹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였다

6) 양기석, 「5~6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관계」,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5(신라의 대외관계사 연구), 신라문화선양회, 1994, 75-95쪽.

7) 정운용, 앞의 논문, 1996, 105쪽. 6세기 초 백제에 대한 신라의 구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주목하여 양국의 동맹이 이전보다 소원해졌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나제동맹의 성격이 5세기에서 6세기로 접어들며, ‘방어동맹’에서 ‘공격동맹’으로 변화하였고, 오히려 대(對)가야정책을 통해 진전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견해도 있다(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2009, 136-148쪽). 다만 양국의 대 가야 정책을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양국의 관계는 대고구려 정책에 있어 그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해되기에 동맹의 성격이 공격동맹으로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8) 정재윤, 「웅진시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고찰」, 『호서고고학』 4·5, 2001, 86쪽.

9) 위가야,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 체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공석구, 「나제동맹을 다시 검토한다」, 『백제학보』 30, 2019, 17쪽.

우호관계를 회복하여¹⁰⁾, 이를 통해 신라군의 참전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였다.¹¹⁾ 이는 우산성 전투를 주로 대 신라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한 것이다. 반면, 이를 서로 다른 지명으로 본 입장에서는 고구려에 대한 공세적 방어,¹²⁾ 538년 천도 이후 회복한 자신감의 표현¹³⁾ 혹은 백제의 대고구려 강경책으로의 변화¹⁴⁾ 등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우산성 전투를 대고구려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지전의 차원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견해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동명이처설의 경우, 사서 편찬 당시 우산성이 이름은 있으나 그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명(有名未詳地分)으로서 중복 기재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¹⁵⁾ 즉, 동일한 장소라면 굳이 사서에 중복하여 기재될 이유가 없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 독산성(獨山城), 이산성(耳山城), 금현성(錦峴城) 등의 사례에서 보듯 다른 중복 지명의 사례 또한 존재하며, 금현성과 같이 동일한 지명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사료상 우산성은 지명이 먼저 등장하는 편목의 위치에 따라 기재하였는데, 이는 편찬가가 동일 지명일 가능성을 유보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동명이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¹⁶⁾

또한, 동명이처설은 전투 직후 이어지는 청화 기사와 이후의 대외관계를 정

10) 강민식, 「5~6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1)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우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곧 신라에게 우호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양상과 영역」,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268-269쪽). 다만, 신라의 왕위 교체로 성왕의 의도가 좌절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548년 독산성 전투로 이어지는 양국의 군사 협력 관계를 온전히 해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2) 정운용, 앞의 논문, 1996, 120쪽.

13) 박운선, 「5세기 중반 ~ 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53쪽.

14) 박민경,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77쪽.

15) 정운용,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南限」, 『사총』 35, 1989, 16쪽 각주61.

16) 『삼국사기』 지리지의 '삼국유명미상지분' 조 내 중복지명은 우산성을 포함하여 獨山城, 耳山城, 錦峴城 등 총 4개이다. 그 중 독산성과 이산성의 경우, 모두 백제-신라의 성곽으로 구분이 되는 만큼 앞서 제기된 견해처럼 동명이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금현성의 경우, 마한 이래 백제가 점유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한 성곽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해당 지명이 중복으로 나타난 이유는 금현성이 나타나는 기사가 각각 1세기, 6세기의 것으로 시기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유명미상지분은 대체로 본서의 편목(신라-고구려-백제)에 따라 나열되었는데, 금현성은 순번 상 백제 지명에 속하면서도 각각 처음과 끝부분에 위치한다. 아마도 찬자의 입장에서 같은 백제 지명으로는 이해되나, 시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지명인만큼 후대에 그 판단을 맡기고자 지명을 두 차례에 나누어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다. 만약 이 전투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나 백제의 우발적 오판에 불과했다면, 신라가 백제의 화친 요청을 수용해야 했던 배경이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다.

물론 신라와의 우호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보았던 동명일치설 역시 당시 가야 지역 진출 문제로 심화하던 백제와 신라의 갈등 양상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당시 백제는 신라의 가야 진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 국면에서 백제의 우산성 공격을 단순히 우호 회복을 위한 행동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지금까지 신라의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그에 따른 성과가 강조되어 온 만큼, 이제는 그 이면에 존재했던 백제의 대외 정책 또한 당시의 역학 관계 속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540년 우산성 전투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 기록과 고고자료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쟁점이 되어온 우산성의 위치를 살펴보고, 백제의 진군 경로를 분석하여 작전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다. 나아가 백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게 된 배경과 이것이 당시 두 나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산성 전투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5세기 후반 전선의 변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웅진기 백제가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 동계(東界)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2절에서는 사료와 지리적 정황을 토대로 우산성의 위치를 비정하여 그 전략적 위상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540년 우산성 전투가 전개된 전장의 환경과 실제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6세기 전반 충주와 단양 지역의 지배 양상을 분석하여 백제의 군사 행동에 영향을 미친 지리적 배경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2절에서는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백제군의 진군로와 고구려군의 대응 경로를 비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전황(戰況)을 복원할 것이다.

4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540년 우산성 전투가 갖는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백제가 감행한 선제공격의 이면에 담긴 정치적 의도

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 사건이 541년 백제의 청화(淸和)와 신라의 대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관산성 전투의 전사(前史)로서 우산성 전투가 갖는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제 2 장 5세기 후반 전선의 변동과 우산성의 입지적 성격

제 1 절 웅진기 대고구려 전선의 재편과 동계의 형성

540년 백제의 우산성 공격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격의 무대가 된 우산성의 위치와 이에 대한 백제의 인식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다만 이를 540년이라는 특정 시점의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국한하여 이해하려 한다면, 그 이면에 담긴 백제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5세기 후반부터 전개된 중원(中原) 지역의 전선 변동과 백제가 축적해 온 경험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백제가 우산성을 공략 대상으로 삼았던 개연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A. [3년(481)]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호명성(狐鳴城) 등 7성을 빼앗고, 또한 미질부(彌秩夫)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는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으니(分道禦之)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 니하(泥河) 서쪽까지 추격해 물리치고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¹⁷⁾

475년 웅진 천도 직후, 백제는 실추된 왕실의 권위와 지배층 내부의 갈등 등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는 데 국력을 집중해야 했다. 고구려 입장에서 당시의 백제는 즉각적인 위협이라기보다, 당분간 대외적인 군사 행동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구려는 주공(主攻)을 소백산맥 이남의 신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5세기 후반의 전선은 소백산맥 서북부 일대에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발한 481년의 전투는 백제에게 단순한 인접국의 전쟁

1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481),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당시 고구려군은 죽령을 통해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내륙 깊숙이(포항 흥해)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이와 같은 고구려의 파상적인 공세는, 불과 몇 해 전 수도 상실의 경험을 안고 있던 백제에게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백제가 가야와 연합하여 신라 구원에 나선 것은, 신라의 존립이 백제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연합군의 대응 방식이다. 사료에 기록된 ‘길을 나누어 막았다(分道禦之)’는 표현은, 연합군이 고구려군의 진로를 정면에서 타격하기보다 퇴로를 차단하거나 분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음을 보여준다. 타국 군대의 자국 영토 진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연합군의 작전 목표는 신라 중심부에 진입한 고구려 본대와의 정면 대결보다 주 진입로이자 퇴각로인 죽령 방면을 차단하는 데 있었을 것이다.¹⁹⁾ 그렇다면 백제가 가야 연합군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487년 백제와 가야 간 갈등을 다룬 사료 B가 주목된다.

18) 사료 A에서 등장하는 호명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일찍이 경북 청송 및 영덕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통설이었다. 이는 호명산(虎鳴山)이 청송에 있다는 점(이병도, 『삼국사기 上』, 을유문화사, 1983)과 영덕의 옛 지명인 야시홀(也尸忽)의 어원적 유사성(야시=여우)에 근거한 것이다(손영중, 「증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역사과학』 85-2, 1985). 그러나 청송과 관련한 지리지에서 호명산이라는 지명을 찾을 수 없고, 단순한 어원적 유사성만으로는 위치를 비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천과 단양 사이의 호명산(虎鳴山)이 주목된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충청도 제천현 산천, “虎鳴山. 在縣東南十七里.”). 물론 481년 당시 해당 지역에 신라 성곽이 축조되었는지는 고고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호명성이 이후 489년 북쪽 변경의 과현과 함께 등장하는 호산성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당시 고구려와의 전선이 제천과 단양 사이, 즉 죽령을 포함한 소백산맥 일대에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 당시 동해안 방면은 고구려가 퇴각로 확보 및 배후 위협 차단을 위해 말갈군을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고립 및 무력화시킨 지역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 및 삼척 일대에 온존했던 신라의 군사력이 ‘分道禦之’에 참여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가 있다(정운용,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南限」, 『사총』 35, 1989, 13-14쪽). 이러한 견해를 확장하면, 고구려군의 주진군로였던 죽령을 넘어 신라 본토로 향하는 경로 상에서도 온존한 신라 지방군이 연합군과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B. ① 이 해(487) 紀生磐宿禰가 任那를 점거하고 高麗와 교통하였으며, 서쪽에서 장차 三韓의 왕노릇하려고 官府를 정비하고 스스로 神聖이라고 칭하였다. ② 任那의 左魯 那奇他甲背 등이 계책을 써서 百濟의 適莫爾解를 爾林에서 죽이고【爾林은 高麗의 땅이다】 帶山城을 쌓아 동쪽 길을 막고 지켰으며, 군량을 운반하는 나무를 끊어 군대를 굶주려 고생하도록 하였다. 百濟의 왕이 크게 화가 나, 領軍 古爾解·內頭 莫古解 등을 보내 무리를 거느리고 帶山城에 나아가 공격하게 하였다. ③ 이에 生磐宿禰는 군대를 내보내 맞아 쳤는데 膽力이 더욱 왕성하여 향하는 곳마다 모두 깨뜨리니 한 사람이 백 사람을 감당할 정도였다. 얼마 후 군대의 힘이 다하니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任那로부터 돌아왔다. ④ 이로 말미암아 百濟國이 左魯 那奇他甲背 등 300여 인을 죽였다.²⁰⁾

481년 가야는 백제와 함께 고구려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일본서기』(사료 B)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가야가 고구려의 영토 내에서 백제의 장수를 죽이고 성을 축조하여 보급로까지 차단한 것이다.²¹⁾

우선 각 지명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 고구려가 5세기 중후반 충주를 교두보로 삼아 미호강 유역 및 금강 합류 지점까지 진출했다는 당시의 전선 상

20) 『일본서기』 권15, 현종천황 3년(487), “是歲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糧津 令軍飢因 百濟王大怒 遣領軍 古爾解·內頭 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21) 사료 B는 서술 관점과 방식에 따라 B-①·B-③(이하 A군)과 나머지 사료 B-②과 B-④(이하 B군)으로 대별된다. A군은 ‘西王三韓’ 등 왜의 시각이 투영되어 있거나, 自稱神聖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특히 ‘整脩官府’, ‘膽氣益壯’ 등은 후한서의 修辭를 차용한 정황이 뚜렷하다. 반면 B군의 경우, ‘距守東道’라는 표현에서 확인되듯 백제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한편, A군의 주요 인물인 기생반숙네(紀生磐宿禰)의 출자에 대해서는 왜인, 백제인, 친고구려계 가야인 등 견해가 분분한데, (송영근, 「5-6세기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제국과 대산성 전투」, 『지역과 역사』 49, 2021, 32쪽). 기생반숙네 즉 키노이쿠하노스쿠네라는 인명은 일찍부터 후대 개작의 결과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가 있다.(키시 토시오(岸俊男), 「紀氏に關する一考察」,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房, 1966, 98-99쪽).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A군은 전승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작 및 윤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나기타갑배(那奇他甲背)의 활동을 상술한 B군은 상대적으로 당시 사실 그대로를 다룬 것으로 이해되므로, 본고에서는 B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황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²²⁾

이러한 맥락에서 이림의 위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²³⁾, 우선 이림이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백제와 고구려의 접경 지역이었으며²⁴⁾, 고구려의 도살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7세기 사료를 통해 고구려의 도살성이 지금의 진천 대모산성으로 비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²⁵⁾, 그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림은 자연스럽게 진천과 청주가 맞닿는 접경지대 일원으로 비정할 수 있다.

청주·청원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 6세기 전반까지 이곳에 백제의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중심부로 비정하기 어려우며, 증평 일대 역시 도살성과의 지리적 연계성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대산성의 위치이다. 이에 대해 ‘백제의 동도·나루·군량 수송’ 등의 정보를 토대로 미호강과 금강의 합류부인 세종 남성골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지리적 위치상 자연스러워 보이나, 대산성이 고구려가 아닌 가야 세력이 주체가 되어 축조한 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성골 산성의 출토 유물은 5세기 후반 고구려 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어²⁶⁾, 이를 가야가 축조한 성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남성골 산성은 대전 월평동 산성²⁷⁾과 함께 당시 고구려가 금강 유역까지 진출하여 구축한 전진 기지로 보아야 하며, 가야가 백제의 보급로를

22) 박종욱, 「한성기 말~웅진기 초 백제의 영역 변천 -중원지역을 중심으로-」, 『고조선단군학』 55, 2024, 257쪽.

23) 구체적으로 임살·김제·진안·괴산·음성 등이 제기되었다(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132-137쪽). 최근에는 미호강 유역의 청주·청원 일대로 보는 견해(양기석,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88-89쪽 ; 여호규,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143-144쪽, 윤성호, 「5세기 중후반 신라 소지마립간대의 대고구려 관계」, 『한국학논총』 51, 2019, 50-51쪽)와, 미호강 상류인 증평군 도안면 일대로 보는 견해(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 경기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8, 2018, 94-95쪽)로 압축된다.

24) 여호규, 앞의 논문, 2013, 143쪽.

25) 구체적인 논증은 해당 절의 마지막에 기술하고자 한다.

26) 충북대학교박물관,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2004 ; 중원문화재연구원, 『청원·C~부용간 도로공사구간 내 청원 남성골 고구려 유적』, 2008.

27)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대전 월평동유적』, 1999 ; 충청문화재연구원, 『대전 월평동 산성』, 2003.

차단하기 위해 축조한 대산성은 가야와의 지리적 관련성 및 수운 차단이라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강 상류 일대에서 찾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²⁸⁾

그렇다면 고구려의 미호강 유역 진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475년 한성 함락을 전후하여 고구려가 충주를 거점으로 백제의 동북부를 공략했다고 보고 있다.²⁹⁾ 다만 구체적인 진출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세종 남성골산성의 입지가 고려된다.

이곳은 백제 수도인 웅진(공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길목을 통제하는 요충지에 해당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481년 전투에서 백제가야 연합군은 신라의 영토를 우회하여 고구려의 진출입로인 죽령 일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만약 481년 이전에 이미 고구려가 남성골산성을 장악하고 있었다면, 연합군은 공주-청주-괴산을 따라 병력을 이동시키는 것은 군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군의 남성골산성 진주는 481년 이후, 즉 백제의 군사 개입으로 고구려의 신라 공략이 좌절된 것에 대한 보복 공세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1년 뒤인 482년 정월에 백제가 진로를 병관좌평으로 삼아 서울과 지방의 군사 관련 일을 맡게 하였으며³⁰⁾, 같은 해 9월 고구려의 부용 세력인 말갈³¹⁾이 한산성을 기습한 사실은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한다.³²⁾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말갈을 앞세운 이러한 공세가 앞서 481년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할 당시 보여주었던 전개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³³⁾ 즉,

28) 윤성호, 앞의 논문, 2019, 51-52쪽. 구체적으로 진안 월계리 산성(곽장근, 「웅진기 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 『백제연구』 44, 2006, 95-101쪽.) 혹은 금산 천내리 산성(신수진, 「5세기 후반 가라국의 성장과 대산성 전투의 성격」, 『한국사연구』 172, 2016, 132-135쪽)을 지목하는 견해가 있다.

29) 서영일, 「5~6세기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과 經營」, 『博物館紀要』 20, 2005, 60~64쪽 ; 정운용, 「한강 유역 회복과 관산성 전투」, 『사비도읍기의 백제』(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5),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118~119쪽 ; 박현숙,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116쪽.

3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4년(482), “春正月, 拜眞老爲兵官佐平, 兼知内外兵馬事.” 고구려의 재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태세 정비로 이해된다.

31) 이강래,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의 군사활동」, 『영토문제연구』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32쪽. 이들은 지리상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예(濊)로 추정된다.

3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4년(482), “秋九月, 靺鞨襲破漢山城, 虜三百餘戶以歸.”

세종·대전 지역에 남은 고구려의 진출 흔적은 웅진에서 불과 하루 이틀 거리에 전진 기지를 구축하여, 백제의 북진 의지를 꺾고 수도를 물리적으로 압박하고자 했던 고구려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고구려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백제가 금강 상류 지역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 금강 상류지역은 가야 세력과 백제의 중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교통로의 요충지로서³⁴⁾, 실제로 이 권역에 속하는 금산·진안 지역은 5-6세기 백제와 가야계 유물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지대였다.³⁵⁾ 백제는 일찍이 이곳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여 5세기 중엽 진안 와정토성을 축조하고 교통로 장악을 통한 지배력 확대를 도모하였다.³⁶⁾ 그러나 이러한 지배는 제한적인 수준에만 그쳤으며, 5세기 후반에는 오히려 가야의 영향력이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였다.³⁷⁾

그러나 북방 진출로가 고구려에 의해 차단되고 수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백제는 고구려를 상대할 인적·물적 기반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금강 상류 지역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군사·교통 요충지로 그 가치가 더욱 부상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백제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했을 것이며³⁸⁾, 이는 필연적으로 가야 세력과 마찰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가야와의 긴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단행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는 곧 고구려와의 결전을 위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486년 백제와 신라가 같은 해에

33) 고구려는 본격적인 신라 침공에 앞서, 480년 11월 말갈을 동원해 신라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신라가 481년 2월 비열성에 순행하며 군사들을 위무한 조치는 앞선 공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비열성은 지금의 안변으로 비정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고구려가 말갈을 이용해 상대의 방어선을 교란한 뒤 실질적인 군사 압박을 가하는 전술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34) 광장근, 「금강 상류지역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한국상고사학보』 66, 2009, 46쪽.

35) 김형태, 「백제의 금강 상류지역 진출과 토착세력의 대응」, 『지역과 역사』 49, 2021, 61쪽.

36) 이혁희, 「진안 와정토성의 축조와 성격 재검토」, 『호서고고학』 31, 2014, 129-133쪽.

37) 와정토성 서쪽에 위치한 황산리고분군을 통해 알 수 있다. 초기에는 백제와 가야의 부장토기 비율이 비슷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야 토기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외에도 금강 상류 지역 일대에서 가야 토기의 부장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한다(김형태, 위의 논문, 2021, 61-62쪽).

38)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기록은 부재하나, 무령왕 9년(509) 괄호(括戶) 기사는 백제의 가야 지역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3년(509), “括出在任那日本縣邑 百濟百姓 浮逃絶貫 三四世者 竝遷百濟附貫也”)

대규모 사열(大閱)을 실시했다는 점은³⁹⁾,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⁰⁾ 따라서 대산성 전투가 있었던 487년 무렵에 이미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이 본격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⁴¹⁾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 사료 B를 재검토하면, 그 양상은 더욱 명확해진다. B-② 기사는 임나의 나기타갑배가 ‘계책(計)’을 써서 백제의 장수를 이림에서 죽였다고 전하나, 그 계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그 실체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대산성을 축조하여 백제의 동쪽 길을 막고, 군량을 운반하는 나무를 끊어 군사들을 굶주리게 만들었던 정황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대로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이 재개된 상황을 전제한다면, 나기타갑배의 해당 행위는 백제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고구려를 돕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사료 상의 ‘계책’이란 바로 이 같은 맥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전장인 ‘이림’과 가야가 축조한 ‘대산성’을 굳이 인접한 공간으로 비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며,⁴²⁾ 이는 금강 상류 일대에서 확인되는 가야 세력의 동향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좌로’, ‘갑배’가 가야의 유력자를 뜻하는 표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는 점을⁴³⁾ 고려하면, 나기타갑배를 비롯한 가야 세력은 백제의 확장에 위기를 느낀 지역 토착세력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대산성 축조와 보급로 차단은 백제의 금강 상류 지역 장악을 견제 및 저지하기 위한 대응의 일

39)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8년(486), “冬十月, 大閱於宮南.” ;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8년(486), “秋八月, 大閱於狼山之南.”

40) 해당 기사에 주목하여 양국이 군사적 연계 하에 공동으로 공격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송영근, 앞의 논문, 2021, 41쪽). 당시 정세상 그 개연성은 충분하나, 양국의 구체적인 작전 공조를 입증할 직접적인 사료가 부재하여 공동 대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적어도 양국이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했다는 점 자체에 의의를 둘 수 있다.

41) 이에 앞선 484년, 백제가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신라 모산성(문경 고모산성)을 구원한 사실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이는 당시 백제의 대외 전략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백제가 지속적인 반격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원거리 군사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역량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42) 송영근, 앞의 논문, 2021, 38-39쪽.

43)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248쪽 ; 이영식,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1993, 281쪽. 구체적인 좌로와 갑배의 연구사 정리는 송영근, 앞의 논문, 2021, 33쪽 참조.

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백제는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동성왕은 측근인 領軍 古爾解·內頭 莫古解를 파견⁴⁵⁾하여 가야 세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산성이 함락되었고, 백제는 후환을 잠재우기 위해 나기타갑배를 비롯한 관련자 300인을 처형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배후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흔들리던 전열을 재정비하여 고구려의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선의 교착과 백제의 강력한 저항은 고고자료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앞서 논의한 남성골 산성은 목책(木柵) 단계에서 석축(石築) 단계로 전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⁴⁶⁾ 즉, 대산성 전투 이후 백제의 병참선이 복구되고 전선이 재정비됨에 따라, 금강 유역 깊숙이 형성되었던 고구려의 전선은 백제의 반격에 밀려, 점차 북쪽으로 퇴축했음을 의미한다.

백제는 호전된 전황을 바탕으로 482년 무렵 고구려의 공세로 밀려 내려왔던 방어선을 다시금 복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산성 전투 이후 3년 뒤인 490년에 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C. 12년(490) 가을 7월에 북부 사람(北部人)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사현성(沙峴城)과 이산성(耳山城) 두 성을 쌓았다.⁴⁷⁾

위 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징발의 대상이 북부인(北部人)으로 명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축성 위치를 비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44) 나기타갑배의 대산성 축조와 보급로 차단이 487년 고구려-백제 전쟁이 재개된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령 양자 간의 직접적인 사전 공조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나기타갑배 세력은 백제의 전력이 고구려와의 전선(이림)에 집중된 틈을 타 봉기를 일으켰거나, 혹은 백제의 패배를 틈타 독자 세력화를 꾀했을 개연성이 높다.

45) 영군은 『송서』 등의 기록을 통해 친위세력으로써의 성격이 확인되며, 내두는 16관등 중 1품인 내두좌평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 검토와 논의는 송영근, 앞의 논문, 2021, 42-43쪽 참조.

46) 양시은,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 2010, 120쪽.

47)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2년(490), “秋七月, 徵北部人年十五歲已上, 築沙峴·耳山二城.”

생각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웅진기 교통로와 관방 체계 정비의 관점에서 사현성과 이산성의 위치를 각각 공주 양화산성과 논산 노성산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⁴⁸⁾ 두 성곽이 웅진 도성과 남쪽의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주요 경로 상에 위치하여, 신라와의 관계 변화에 따라 교섭로 혹은 방어선으로 기능했다고 보았다.

물론 군사적 공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만큼, 이를 위한 연락의 차원에서 남쪽 방면의 교통로를 정비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공주 이남에서 논산 일대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고구려와의 최전선 지역에 있을 인력을 징발했다는 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북부인’을 징발했다는 기록은 축성이 웅진의 북쪽, 즉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는 전선의 최전방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현성⁴⁹⁾은 ‘사현(蛇峴)’⁵⁰⁾이라는 지명에 따라 괴산 사리면의 모래재 일대로 비정되었으며⁵¹⁾, 구체적으로 괴산 수재산성⁵²⁾이 지목된 바 있는데⁵³⁾, 이곳이 사료의 기록과 당시의 전황에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 판단된다.

물론 해당 지역 성곽들의 축조시기를 5세기 후반으로 확정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⁵⁴⁾ 다만 사료에 명시된 인력 동원의 주체와 487년

48) 박종욱, 앞의 논문, 2024, 261쪽 각주 104.

49) 종래에는 공주 정안면 광성리산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이노우에 히데오, 『朝鮮城郭一覽』, 『朝鮮學報』 104, 1982, 150쪽 ; 김영심, 『백제 지방통치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204쪽.)

5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정안현 산천, “蛇峴. 在縣北十五里.” ; 『대동지지』 권6, 충청도, 청안, 영로, “蛇峴, 北十二里.”

51) 차용길, 『증평군지』, 2005, 159쪽 ; 조상기, 『청주지역 백제토기 전개과정과 고대정치체』, 진인진, 2015, 242쪽 ; 장창은, 「‘나-계 동맹기’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 변천」, 『한국학논총』 4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109-110쪽. 모래재라는 지명의 존재는 지명유래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 충청편』, 2010, 279쪽). 또한, 18세기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도 沙峴이 청안과 괴산과의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여지도서』 충청도 괴산군 도로, “南距清安縣界沙峴”).

52)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와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경계의 수재산(해발 198.5m)에 위치한다. 성벽의 둘레는 약 200m로 성의 크기는 크지 않은데, 증평~괴산간 도로 및 사리~청안간 도로 등 주변의 도로를 모두 관망할 수 있는 곳이다. 자세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삼국시대 축조된 토축 산성으로 추정되고 있다(괴산군·증원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괴산군-』, 2004, 293쪽).

53) 전택재, 앞의 논문, 2018, 96-97쪽.

54) 사현성을 괴산 수재산성에 비정함에 따라 이산성을 증평 추성산성(이성산성)으로 비정해볼 수

이후 전개되었을 전황을 종합할 때,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 경로인 괴산-증평 일대를 차단하기 위해 이 지역을 군사적 거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결국 490년의 사현성 축조는 482년 이후 웅진 인근까지 위협받았던 전선을 본래의 위치로 복구하고 그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백제는 이를 발판으로 향후 고구려와의 장기적인 대치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백제의 의도는 신라와의 군사 공조를 통해 현실화되었다. 494년 신라가 살수(薩水)에서 고구려에게 패하여 견아성(犬牙城)으로 포위되었을 때, 구원을 보내 위기를 타개하였고⁵⁶⁾, 반대로 495년에는 신라의 도움을 받아 치양성(雉壤城)을 포위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⁵⁷⁾

주목할 점은 당시 전장의 위치이다. 살수는 괴산 청천 일대⁵⁸⁾, 견아성은 그 이남인 보은 방면에 위치한 신라의 중간 거점으로 비정되며⁵⁹⁾, 치양성은 앞

있으나, 해당 산성은 현재까지 백제 한성기에 해당되는 4세기대부터 축조·운영되었던 성곽으로 확인되고 있어,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55) 충주-괴산 방면에서 진천-증평의 미호천 유역으로 공격해오는 고구려를 의식한 방어성으로 추정된 바가 있다(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33쪽).

5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6년(494), “秋七月, 將軍實竹等, 與高句麗戰薩水之原, 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兵圍之. 百濟王牟大遣兵三千, 解救圍.”

57)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 4년(495), “八月, 遣兵圍百濟雉壤城, 百濟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德智, 率兵來援, 我軍退還.” 같은 책 백제본기 동성왕 17년 8월 기록과 동일.

58) 살수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삼년군 청천현이 본래 살매현이었다는 기록에서 ‘薩買’와 ‘薩水’를 연결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청주목 산천조에서 청천현에 靑川이 있다는 기록을 통해, 괴산군 청천면에 비정되어왔다(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82쪽). 이외에도 청천면과 인접한 청원군 미원으로 비정하거나(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 합집, 1999, 355-385쪽 ; 『신라 서원소경 연구』, 2001, 34쪽). 청천면 후평리의 별판으로 본 견해도 있다(김영관, 「고대 청주 지역의 역사적 동향」, 『백산학보』 82, 2008, 47쪽 각주 46). 한편 이와 다르게 살수를 청주로 비정한 견해도 있다(정영호, 「고구려의 금강유역진출에 대한 소고」, 『산운사학』 3, 1989, 109쪽). 다만 청천면은 전투를 벌이기에 그 면적이 다소 좁다는 점에서 후평리로 보는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59) 지역으로는 크게 옥천설(사카이 가이조(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조선학보』 54, 1970, 40쪽), 괴산설(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삼국사기』 1, 평범사, 1980, 86쪽), 문경설(정영호, 위의 논문, 1989, 97쪽), 보은설 등(양기석, 앞의 논문, 1999, 365-372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청천과의 관계와 신라가 후퇴 후 재정비한 곳이 견아성임을 감안하면 보은 일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주 견훤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이도학, 「신라의 북진경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 1988), 고구려가 괴산 청천 화양동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이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신라의 입장에서 마땅한 중간 거점 없이 소백산맥을 넘어 충주로 진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8, 36쪽)을 감안하면, 청주~보은 일대에서 찾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서 사현성이 축조된 괴산 일대 혹은 그 인근의 주요 거점으로 추정된다.⁶⁰⁾

이처럼 사료에 나타난 지명들을 검토해볼 때, 웅진기 백제의 북계가 전황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를 보였던 것과 달리⁶¹⁾, 동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정한 권역 내에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후 550년의 전투에서 등장하는 도살성의 위치를 통해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앞서 487년 대산성 전투의 배경을 논하며 고구려의 거점인 도살성을 진천 대모산성으로 비정한 바가 있다. 이 비정은 6세기 전반 백제 동계의 구체적인 유지 양상을 파악하는 핵심 전제가 되므로, 649년의 사료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도살성의 위치는 649년 백제와 신라의 전투 기록에 나타난 구체적인 전황 묘사를 통해 역추적해볼 수 있다.⁶²⁾ 당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도살성 아래에 주둔하며 백제군과 일전을 벌였는데, 이를 분석하면 도살성의 입지와

청주 낭성산성과 구라산성, 보은 주성산성 등을 견아성의 위치로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조사가 미진한 상황이라는 하나, 구라산성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6세기 중반 이후의 신라 유물만 수습된 바가 있다.(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청원 구라산성』, 청원군, 2001, 219-220쪽), 이를 고려하면 청주 낭성산성과 보은 주성산성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60) 치양성은 근초고왕대에도 나오는 지명이다. 이때는 황해도 백천(白川)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므로 495년의 치양성 또한 동일한 위치로 볼 여지는 있지만, 과거와 달리 신라의 구원군이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495년의 치양성을 원주(김명남, 『백제 동성왕대의 대외 진출과 영역의 확대』, 『한국사상과 문화』 22, 2003, 227쪽 ;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2006, 290-291쪽) 또는 괴산 일대(양기석, 앞의 책, 2008, 84쪽)로 보기도 한다. 원주설의 경우 이곳의 지명인 雉巖山을, 괴산설의 경우 괴산의 옛 지명인 槐壤郡과 상통한다고 본 것이다. 한성을 상실했던 백제가 원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천을 거쳐 북상해야 하는데, 490년에 괴산에 사현성을 축조한 것을 보면, 이곳까지 진출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당시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교전 지역을 감안하면 소백산맥 서쪽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백제의 치양성 차지는 죽령로의 거점을 차단하여 고구려가 자국의 동변을 압박했던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본 견해가 주목된다.(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경문화사, 2014, 134쪽)

61) 본문 24쪽 [표 2]-[도 1] 참조. 사료에 기록된 지명을 신뢰하는 측면에서 그 전황을 고려할 때, 백제의 북계는 최대 예상강 일대에서 최소 금강 이북에 걸쳐 그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62) 해당 표현은 다음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3년(649), “秋八月, 百濟將軍殷相率衆來, 攻陷石吐等七城. 王命太將軍庾信·將軍陳春·竹旨·天存等, 出相之. 轉鬪經旬不解, 進屯於道薩城下…”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9년(648), “秋八月, 王遣左將殷相, 帥精兵七千, 攻取新羅石吐等七城. 新羅將庾信·陳春·天存·竹旨等逆擊之, 不利收散卒, 屯於道薩城下再戰, 我軍敗北.” ; 『삼국사기』, 권42, 열전2 김유신 중, “太和二年秋八月, 百濟將軍殷相, 來攻石吐等七城, 王命庾信及竹旨·陳春·天存等將軍, 出禦之. 分三軍爲五道, 擊之, 互相勝負, 經旬不解, 至於僵屍滿野, 流血浮杵. 於是, 屯於道薩城下, 歇馬餉士, 以圖再舉…”

성격을 세 가지 측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신라군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싸웠다는 점이다. 이는 도살성이 장기간의 농성전에는 적합하지 않은 성곽임을 의미한다. 대신 군사들을 이곳으로 모았다는 점에서, 도살성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병력의 집결과 이동이 용이한 지방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가졌음을 보여준다.

둘째, 도살성과 함께 석토성 등 7성이 새롭게 기록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신라가 도살성을 확보한 이후, 도살성 단독으로는 방어가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그 주변에 추가적인 축성 작업을 진행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당시 공격 주체인 백제와의 접경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축성의 중심은 백제와 인접한 서남쪽 방면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셋째, 기록에 나타난 ‘전투(轉鬪)’와 ‘오도(五道)’로 대표되는 당시 전황이다. 이로 보아 백제군의 진격로는 하나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제로 백제에서 대모산성으로 향하는 길은 미호강 본류를 지나 청원구 장대리의 성암천(聖岩川)이나 구곡리의 세금천(洗錦川)을 따라 진천 분지로 진입하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할 때, 도살성은 진천 대모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대모산성은 해발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여 대규모 병력이 집결하기에 용이하며, 주변 평지와 고도차가 크지 않아 649년 기사의 묘사와 부합하는 면이 많다.⁶³⁾

이에 대응하여 고구려가 침공한 백제의 금현성(金峴城)은 세종시 전의면의 금이성(金伊城)으로 비정된다.⁶⁴⁾ 백제의 입장에서 진천 공략은 그 이남 지역

63) 대모산성은 주변 평지가 해발 67~70m인데 비해 성의 위치는 해발 71~100m 정도의 낮은 구릉부에 축조되어 있다. 특히 성 내부에서는 삼국의 유물이 모두 출토되어 백제-고구려-신라라는 시간성을 보여준다. 단 고구려 토기의 경우 수습된 흑도계 연질 마연 토기편 1점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진천 대모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진천군, 1996, 84쪽).

64) 금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중평 추성산성(이성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음의 정황을 고려할 때, 세종 금이성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첫째, 금이성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철북이 한 점 발견되어 고구려군의 점유 혹은 교전 사실이 고려된다(한국고고환경연구소, 『세종 금이성 - 1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2018, 125-129쪽). 둘째, 진천 지역의 중요성에 비해 이후 사료에서 금현성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신광철, 「금이성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대외정책」, 『한국사학보』 74, 2019.2, 274쪽). 셋째, 도살성 함락(1월) 후 2개월이

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며, 고구려의 금현성 침공은 상실한 영토(도살성)의 수복을 넘어 백제군의 진격로와 배후를 차단하는 데 주안을 둔 기동(機動)으로 파악된다.⁶⁵⁾

이상의 논의를 통해, 490년 사현성 축조로 형성된 백제의 동계가 6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괴산·증평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동계의 안정은 백제가 대외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북계의 전선이 유동적이었던 것과 달리, 동계가 안정적으로 통제됨으로써 백제는 수도 우측방에 대한 수비 부담을 덜고, 향후 전개될 군사 활동의 안정적인 배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백제의 동계 양상을 토대로 이어지는 2절에서는 당시 백제의 군사적 시선이 향했던 우산성의 위치와 그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논의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우산성의 위치와 전략적 위상

백제의 동계가 5세기 말에 이르러 안정을 찾은 것과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 신라의 북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468년 2월, 고구려는 말갈군 1만을 동원하여 신라의 실직성(삼척)을 공취(攻取)하였다.⁶⁶⁾ 이에 신라는 같은 해 9월, 하슬라(강릉)의 장정을 동원하여 니하에 성을 축조하였는데⁶⁷⁾, 이는 고구려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⁶⁸⁾

지나 금현성 공격(3월)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두 성이 서로 인접하기보다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5) 고구려 개산군의 위치로 비정되는 안성시 죽산면은 서쪽으로는 녹배고개를 넘어 서해안 지역, 동쪽으로는 월정고개를 넘어 충주, 남쪽으로 걸미고개를 지나 음성-진천-청주에 이를 수 있는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는 점이 고려된다. 이로 보아 고구려군은 충주가 아닌 안성에서 출발하여 우선 도살성에 대한 재탈환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66) 『삼국사기』 권3 자비마립간 11년(468), “春, 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 ;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56년(468), “春二月, 王以靺鞨兵一萬, 攻取新羅悉直州城.” 신라본기에는 구체적인 시기, 말갈의 병력과 공취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67) 『삼국사기』 권3, 자비마립간 11년(468), “秋九月, 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 【泥河一名泥川.】.”

주목할 점은 당시 신라의 축성 방향이다. 5세기 후반을 전후로 신라의 산성들은 남한강 최상류에서 시작하여 점차 하류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⁶⁹⁾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니하성은 그 초입에 위치한 정선 송계리 산성으로 추정되며⁷⁰⁾, 니하는 남한강 상류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파악된다.⁷¹⁾

468년 니하성 축조 이후, 신라는 남한강 상류 일대에 대한 지배력을 다지며 하류 방면으로의 진출과 방비를 병행해 나갔다. 그러나 앞서 1절에서 언급한 481년의 전쟁은 이러한 신라의 방어 전략에 수정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군은 미질부(포항 흥해)까지 진출했다가 연합군의 반격에 쫓겨 니하 서쪽에서 격파(擊破)되었다. 이는 니하가 고구려군의 퇴각로 상에서 지리적 경계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고구려군이 남한강 수로를 타고 내륙으로 복귀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퇴각로는 충주 방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할 때, 사료상의 니하를 동해안이나 낙동강 수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복귀 경로 상에 위치한 남한강 상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니하성과 연결해 볼 때, ‘니하’의 범위는 충주 황강역

68) 실직성의 함락 직후 하슬라에서 인력을 징발했다는 사실은, 당시 고구려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슬라와 실직을 잇는 신라의 행정·군사적 통제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고구려로 인해 국토가 단절된 상황이었다면, 축성 작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하슬라가 본래 고구려의 河西良이었고, 蔚州를 河曲縣 혹은 河西縣이라 한데 주목하여 하슬라를 옮긴 일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512년 신라의 우산국 정벌과 연결 짓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69) 양병모, 「단양 온달산성의 축조시기와 운영주체에 대한 재고찰」, 『한국고대사탐구』 29, 2018, 229쪽. 두 산성 사이에 위치한 애산리 산성의 경우, 근방에 위치한 신월리 고분군이 6세기 전반 ~ 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연속성이 나타난다.

70) 서영일, 앞의 책, 1999, 52쪽 ; 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제도 정비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11쪽 ; 홍영호, 앞의 논문, 2012, 34-37쪽. 지리적으로 송계리산성은 북쪽으로는 삽당령(插唐嶺)을 넘어 강릉으로, 북동쪽으로는 백복령(白伏嶺)을 넘어 삼척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중앙에 위치한다. 신라의 입장에서, 이 산성은 남한강 수로를 타고 동해안로를 타격하려는 적을 감제 및 방어할 수 있는 요충지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71) 니하는 지마이사금 14년(125) 기록 속 말갈의 침공로 상에서도 등장한다(『삼국사기』 권1, 신라 본기 1, 지마이사금 14년(125), “秋七月, 又襲大嶺柵, 過於泥河. 王移書百濟請救, 百濟遣五將軍助之. 賊聞而退.”). 이와 관련지어 그 위치를 강릉 일대에서 찾기도 하나, 최초 침공이 강릉이 아닌 삼척을 향했다는 점에서 그 아래인 남한강 상류로 찾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일대에서 정선·영월에 이르는 남한강 수계 전반으로 구체화해볼 수 있다.⁷²⁾

즉, 481년의 전투는 고구려가 나하를 통해 동해안 방면과 내륙 산간을 유기적으로 오고 가며, 신라의 배후를 위협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건이었다. 이에 신라는 기존의 방어선만으로는 적의 기동을 온전히 저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절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는 남한강 상류의 방어 중심(縱深)을 전방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우산성은 바로 이러한 방어상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구축된 핵심 거점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음의 전투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1. [18년(496)] 가을 7월에 고구려가 와 우산성(牛山城)을 공격하였다. 장군(將軍) 실죽(實竹)이 출격해 니하 가에서 그들을 깨뜨렸다.⁷³⁾

D-2. [5년(496)] 가을 7월에 군대를 보내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하였다. 신라의 군대가 니하 가로 나와 공격하여 아군이 패배하였다.⁷⁴⁾

D-3. [19년(497)] 8월에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⁷⁵⁾

D-4. [6년(497)] 가을 8월에 군대를 보내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하여 이를 빼앗았다.⁷⁶⁾

72) 니하의 범위를 오대산~충주 진포 부근까지로 추정된 견해를 참고하였다(고창민, 「5세기 후반 ~ 6세기 중반 신라의 남한강 상류 진출 과정」, 『신라사학보』 62, 2024, 333쪽). 추가적으로 『대동여지도』를 살펴보면, 당시 충주의 읍치인 지금의 충주시 교현동 일대 동쪽, 즉 신당리 일대에는 황강(黃江)이라 불리는 역참이 확인된다. 흙탕물을 뜻하는 ‘泥’와 누런 강을 뜻하는 ‘黃’의 의미가 상통함을 고려할 때, 니하의 하한선은 충주 신당리 일대이며, 그 상한은 수계가 이어지는 영월~정선에 이르는 구간으로 파악된다.

7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496), “秋七月, 高句麗來攻牛山城. 將軍實竹出擊泥河上, 破之.”

74)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 5년(496), “秋七月, 遣兵攻新羅牛山城. 新羅兵出擊泥河上, 我軍敗北.”

7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9년(497), “八月, 高句麗攻陷牛山城.”

76)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 6년(497), “秋八月, 遣兵攻新羅牛山城, 取之.”

사료 D-1에서 이때 신라 장군 실죽이 니하 가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사실은, 우산성이 남한강 상류와 인접한 곳에 위치했음을 방증한다. 이는 당시 고구려의 공격 목표가 신라 내륙 깊숙이 위치한 후방으로의 침투가 아니라, 그 진입로인 남한강 수로를 통제할 수 있는 교두보의 확보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고구려가 496년에 다시금 이곳에 국력을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백제와 신라와의 접경 전반에 걸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함이었다. 481년 이후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 양측 전선 모두에서 일정한 군사적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백제 방면에서는 금강 유역까지 압박을 가했고, 신라에 대해서도 489년 죽령 일대를 재차 공략하며 신라 본토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⁷⁷⁾

그러나 490년대에 이르러 전황은 고구려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494년 살수-견아성 전투와 495년 치양성 전투에서 확인되듯, 백제와 신라의 군사 공조로 인해 고구려의 공세가 번번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구려는 나제 간의 군사적 연계가 긴밀했던 전선에서의 소모전을 피하고, 공격의 방향을 신라의 남한강 상류 최전방 거점인 우산성으로 선회하여 국면 전환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산성은 남한강 수로를 통한 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신라가 5세기 후반에 구축한 군사적 요충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산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데에 남한강 상류와의 인접성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5세기 후반 축조라는 고고학적 증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일찍이 우산성을 충주⁷⁸⁾, 단양⁷⁹⁾, 영월⁸⁰⁾ 등 남한강 상류의 여러 산성들로 보는 견해가 제기

77) 고구려는 이 해 9월에 신라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과현(戈峴)에 이르렀으며, 10월에는 호산성(狐山城)을 함락시켰다. 시기적으로 인접한 두 지명은 지리적으로 연속된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현의 구체적인 위치 비정이 명확하지 않으나, 호산성의 경우 481년 고구려가 공격한 호명성과 동일하다는 견해(사카이 가이조, 앞의 논문, 1970, 40쪽)와 흥천 대미산성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고창민, 「460~480년대 신라의 대고구려 전쟁과 강원 영서지역 진출」, 『군사』 128, 2023, 33-35쪽). 그 중 후자의 견해는 5세기 신라의 흥천 지역 진출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는 점에서 후자의 견해는 따르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전자의 견해를 수용하고 본문의 각주 18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78) 충주·보은 일대로 보는 견해(쓰다 소키치, 앞의 책, 1913, 78-79쪽 ; 같은 책, 96-98쪽.), 충주·단양 일대(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000, 303쪽.) 등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우산성을 삼국의 접전지로 전제할 것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는 충주 장미산성, 남산성 등이 제시되었다(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경계 - 「중원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역사와 현실』 76, 2010, 211-212쪽 ; 박성현, 「고구려의 충주 지역

되어왔다.

우선 충주의 경우, 남산성(南山城)과 장미산성(薔薇山城)⁸¹⁾은 성 내 출토 유물과 발굴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6세기 중반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춘의 온달산성(溫達山城)⁸²⁾ 역시 축조 시기가 6세기 중반 이후로 편년된다는 점에서⁸³⁾, 우산성 전투의 무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남한강 수로 상에 위치하나, 5세기 후반이라는 시기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단양의 공문산성(貢文山城)⁸⁴⁾ 또한 후보지로 제시된 바가 있으나, 입지 면에서 난점이 존재한다. 공문산성은 단양의 관문이자 최전방 요충지인 적성산성(赤城山城) 보다 후방인 죽령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물론 적성산성의 석축 시기는 6세기 중반 무렵으로 편년되나, 그 이전에 신라에 의한 토축 성곽이 먼저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토축 가능성을 전제한다면⁸⁵⁾ 당시 신라가 최전방의 적성산성을 두고, 굳이 후방의 공문산성을 주된 방어 거점으로 삼았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공문산성에서는 5세기 후반 신라의 점유 흔적은 물론, 정확한 축조 주체를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영월 정양산성(正陽山城)이 주목된다. 정양산성은 성 내외의 출토 유물과 축조 양상을 고려할 때, 5세기 후반에 축성되어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다.⁸⁶⁾

진출 시기와 경로」, 『융합의 공간, 中原, 중원과 고구려』, 중원역사문화총서2, 2022).

79) 강민식,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軍史』 87, 2013, 235-236쪽. 단양군 영춘면 일대에서 온달과 같은 고구려 관련 전설이 존재함에 착안한 것이다. 한편, 이전에 작성한 글(강민식, 앞의 논문, 2010)에서는 496년과 540년의 우산성을 동일한 지명으로 이해했으나, 이후 그 견해를 수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시 신라의 남한강 상류 관방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양 공문산성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고창민, 앞의 논문, 2024).

80) 구체적으로 영월 정양산성에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윤성호, 앞의 논문, 2019, 25쪽).

81) 박성현, 앞의 논문, 2010, 211-212쪽 ; 박성현, 앞의 논문, 2022.

82) 강민식, 앞의 논문, 2010.

83) 양병모, 앞의 논문, 2018, 250-251쪽.

84) 고창민, 앞의 논문, 2024.

85) 구체적인 단양 지역 지배 양상은 후술한 3장 1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86) 김진형, 「영월 정양산성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선사와 고대』 65, 2021, 270쪽. 신라가 5

무엇보다 정양산성의 성벽 축조 수법은 보은 삼년산성과 문경 고모산성 등 5세기 후반 주요 신라 산성들과 동일하다.⁸⁷⁾ 이는 정양산성이 다른 성곽과 비교하여 신라가 국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구축한 성곽임을 보여준다.

입지 조건 또한 우산성의 성격과 부합한다. 정양산성은 다른 후보지들에 비해 비고(比高)가 높아 성 내외의 통행이 극히 제한적이며, 인접한 고분군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산성이 행정 치소로서의 기능보다, 군사적 방어와 감제(瞰制)에 특화된 순수 요새로의 기능이 우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정양산성 일대는 다수의 산성들이 연계하여 축성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정양산성이 이 지역 방어 체계의 최상위 거점으로서 주변 성곽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⁸⁸⁾ 즉, 신라는 니하성과 우산성 그리고 기타 다른 산성들⁸⁹⁾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남한강 수로를 통해 침투하는 적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남한강을 타고 충주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기능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⁹⁰⁾

결론적으로 영월 정양산성은 지리적 위치와 축성 시기, 그리고 전략적 가치 부분에서 사료상의 우산성과 부합하는 면이 많다. 고구려가 496년과 497년 두 차례에 걸쳐 이곳을 집중 타격한 이유 역시⁹¹⁾, 정양산성이 반드시 무력화

세기 후반 경 영월 및 정선 일대로 진출했음은 주변 유적의 발굴 성과를 통해 확인된다. 정선 송계리 산성과 고성리 산성은 6세기 전반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강원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6a ; 2006b), 정선 임계리 고분군에서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토기가 출토되었다(강원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7). 또한 서남쪽의 정선 아우라지 유적 주거지에서도 5세기 후반경의 신라 토기가 확인되는바(이창현·신유리, 「영남지방 삼국시대 주거지 사론」, 『문화사학』 33, 2010), 신라가 5세기 후반 이미 남한강 상류인 영월-정선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87) 크게 장방형의 판석을 이용한 내외협축과 井자형 입면구조,品茶형 쌓기에 단면 삼각형의 보축 성벽, 15m 이상의 높은 성벽 그리고 반원형의 치성, 梯形의 수구 등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최관호, 「5세기 후반 신라 북진거점 석축산성의 구조와 성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2-35·51-53쪽 ; 심중훈, 「신라 석축산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161-166쪽.)

88) 최관호, 「신라 자비·소지 마립간기 축성의 특징과 목적」, 『한국성곽학보』 32, 2025, 189쪽 각주 50.

89) 남한강 수로 상에는 단양 온달산성, 영월 대야리산성, 영월 정양산성, 정선 고성리산성, 정선 애산리산성, 정선 송계리산성 등이 위치한다. 축조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으나, 이들 성곽이 모두 강의 남안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은, 남한강 수로를 천연의 해자로 삼아 북방 세력의 침투를 저지하려 했던 신라의 의도를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90) 장창은, 앞의 책, 2020.

91) 당시 고구려의 서북방 정세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사실도 참고된다. 490년대 초반 북위(北

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산성의 위기는 백제의 방어 체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신라가 이 지역을 상실하여 북방 전선에서 위축될 경우, 고구려의 군사적 역량이 백제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백제 또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백제는 496년과 497년의 전투에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493년 신라에 먼저 혼인을 청하고⁹²⁾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두 차례나 고구려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했던 점을 상기하면 이러한 백제의 대응은 이례적이다.⁹³⁾

우선 우산성의 지리적 위치가 백제군의 개입을 어렵게 했다는 견해가 있다.⁹⁴⁾ 이는 489년 고구려의 침공에도 백제가 구원군을 파견하지 않았던 사례를 근거로 든다. 즉, 동일 권역인 우산성에서 496년에도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이 애초에 백제의 군사력이 미치지 어려운 곳임을 방증한다는 것이다.⁹⁵⁾

물론 이러한 물리적 거리의 제약은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유효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군사적 지원 여부는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정치적 이해관계 및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호산성의 사례를 들어 우산성 미지원을 단순히 지리적 불가항력이라는 부분에서 기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백제의 대내외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대고구려전에 직면한 신라에 긴장감을 조성하여 양국 관계에서

魏)와의 갈등이 있었으나, 대규모 남정 등 북위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대규모 무력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방의 정세 안정은 고구려가 남방 전선인 우산성 공략에 대규모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9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5년(493), “春三月, 王遣使新羅講婚, 羅王以伊滄比智女歸之.”

93) 물론 혼인 관계가 양국의 영구적인 우호를 무조건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영향력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553년 백제가 혼인을 청한 뒤 이듬해에 554년 신라의 관산성을 침공한 사실에서 이러한 양국 관계의 가변성을 잘 보여 준다.(『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1년(553) 10월 ; 같은 책 성왕 32년(554) 7월) 그러나 496년의 경우, 직전 해까지 군사 공조가 원활했다는 점에서 백제의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94) 정운용, 앞의 논문, 1996, 114쪽.

95) 고창민, 앞의 논문, 2024, 341쪽.

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나⁹⁶⁾, 동성왕 대의 실정(失政) 및 정국 불안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⁹⁷⁾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당시 백제 또한 고구려의 위협 아래 놓인 수세적인 입장이었음을 감안하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국 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을 채택했을 가능성은 낮다. 후자의 경우 역시 무령왕이 정변(政變)을 통해 즉위했을 가능성⁹⁸⁾을 배제할 수 없어 동성왕의 실정에 대한 기록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⁹⁹⁾ 무엇보다 정국의 불안정이라는 요인만으로는 496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발생한 대응 부재를 온전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연재해¹⁰⁰⁾ 또한, 497년 6월의 대홍수를 제외하면, 우산성 전투가 처음 발발한 496년에 지원을 가로막을 만한 뚜렷한 기상이변은 확인되지 않는다.¹⁰¹⁾ 따라서 백제의 방관에는 이러한 단편적 요인들이 아닌, 백제의 군사 행동을 제약하거나 그 판단을 수정하게 만든 보다 근본적인 배경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1. 493.10 지진 2. 495.2 가뭄	1. 490.11 이상기후 2. 491.6 대홍수 3. 491.7 기근으로 인한 유망(신라) 4. 492.3 이상기후 5. 492.4 태풍 6. 497.6 대홍수 7. 499 가뭄으로 인한 유망(고구려)과 도적 8. 499.10 전염병	1. 494.4 홍수 2. 496.5 큰 비 3. 497.7 가뭄과 누리 4. 500.4 폭풍

[표 1] 490-500 삼국 재이기사(『삼국사기』 각국 본기 기록 참조)

96) 박진숙, 「백제 동성왕대 대외정책의 변화」, 『백제연구』 32, 2000, 99쪽.
 97) 후보돈, 「6세기 전반 나제동맹 관계의 향방」,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2018, 20쪽.
 98) 정재운, 「동성왕 23년 정변과 무령왕의 집권」, 『한국사연구』 99-100, 1997, 113~119쪽 ; 김기섭, 「백제 동성왕의 즉위와 정국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50, 2005, 18쪽.
 99) 동성왕과 달리 무령왕은 즉위 초부터 적극적인 복진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동성왕의 죽음과 무령왕을 비롯한 그 배후세력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00) 김병남, 「496년 고구려의 우산성 공격 의미와 나제의 대응」, 『전북사학』 56, 2019, 22-24쪽.
 101) 한편, 신라의 경우 496-497년의 전투 이전에 각각 큰 비(496.5)와 가뭄과 누리(497.7) 등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고구려가 침공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496년 2월, 가야가 신라에 백치(白雉)를 보냈다는 점이다.¹⁰²⁾ 이는 487년부터 이어진 백제와 가야 간 갈등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⁰³⁾ 즉, 백제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가야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가야가 그 대응책으로 신라와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백제는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과 더불어, 498년 탐라 친정으로 대표되는 서남해안의 일대의 장악 등 남방 전략에 집중하고 있었다.¹⁰⁴⁾ 이러한 상황에서 가야가 신라와 밀착하며 영향권에서 이탈하는 것은 백제에게 후방의 안정을 저해하는 변수로 인식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497년 5월 병관좌평으로 임명된 연돌(燕突)의 등장¹⁰⁵⁾ 역시 기존의 정치적 해석(신·구 세력 갈등)¹⁰⁶⁾과 다른 시각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390년 달솔로서 군공을 세워 병관좌평에 오른 진가모(眞嘉謨)의 사례나¹⁰⁷⁾, 이후 연씨 일족이 군사 부문에서 중용된 점을 고려할 때, 연돌의 발탁은 당시 백제가 직면한 ‘남부 지역 안정’이라는 군사적·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인선으로 판단된다.

10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8년(496), “春二月,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白雉는祥瑞物로써 신라가 가야 지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영향력을 확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해된다(서보경, 「5세기 말 ~ 6세기 초 한반도 제국과 왜국의 관계」, 『선사와 고대』 18, 2003, 219 각주 17).

103) 서보경, 위의 논문, 2003, 218-219쪽 ; 박윤선, 「백제의 對신라 정책」,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2018, 81쪽 ; 김병남, 위의 논문, 2019, 24쪽.

104)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0년(498),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 【耽羅即耽牟羅】.” 무진주는 지금의 광주광역시이다. 탐라는 일반적으로 濟州島로 이해되나, 광주가 정벌군의 도선장(渡船場)이 될 수 없음을 들어 ‘토무’ 즉 강진 등 해남지역에 대한 이칭으로 본 견해도 있다(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53쪽) 이는 제주도의 복속 시기를 두고 그 견해가 나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백제가 배후의 안정을 기하고 경작지의 확보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105)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19년(497), “夏五月, 兵官佐平眞老卒, 拜達率燕突爲兵官佐平.” 연돌은 490년 9월에 달솔에 임명되었는데, 그에 앞선 478년에 연신(燕信)이 해구(解仇)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고구려로 도망친 바가 있다.

106) 김병남, 위의 논문, 2019, 22-24쪽. 일찍이 신진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거나(양기석, 「한국고대의 중앙정치」, 『국사관논총』 21, 1991, 81쪽.) 혹은 신진 세력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 중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정재운, 「동성왕의 즉위와 정국운영」,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515쪽), 그 중간에 위치한 견해라 할 수 있다.

107)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3, 진사왕 6년(390), “九月, 王命達率眞嘉謨, 伐高句麗拔都坤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

결국 백제는 가야의 ‘送白雉’ 이후 고조된 남방의 위기 국면 속에서, 신라에 대한 군사 지원보다는 내부 단속과 남부 지역의 통제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백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인 위협을 감수하기로 한 전략적 판단의 산물로 평가된다.

결국 신라는 백제의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고구려의 공세를 단독으로 감당해야만 했다. 496년 첫 전투에서는 실족의 분전으로 고구려군을 격퇴하며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이듬해 재차 이어진 침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라는 끝내 우산성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남한강 수로를 이용한 북진 시도가 좌절됨은 물론 당분간 방어 위주의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주목할 점은 우산성 함락 이후 고구려의 행보이다. 고구려는 우산성을 점거하여 신라의 핵심 거점을 무력화한 직후, 신라 내륙으로의 추가 진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고구려가 신라 영토의 점령 자체보다는, 백제와 신라 간 공조체계를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증명하듯 고구려는 우산성을 통해 신라를 전선에서 일시적으로 봉쇄하는데 성공하자, 주저 없이 주력을 다시 백제 전선으로 집중시켰다.

이로써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은 일시적인 소강(小康)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시기 신라가 고구려를 경유하여 북위(北魏)에 사신을 파견한 정황이 확인되나¹⁰⁸⁾, 이를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 혹은 종속 관계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고구려가 배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황은 504년 북위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 예실불(芮悉弗)의 말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¹⁰⁹⁾ 그는 ‘섭라(涉羅, 신라)가 백제에 병합되었기에 가옥(珂玉)을 바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 발언이 ‘부

108) 『魏書』 卷8 世宗紀8 景明 3年(502) ; 『魏書』 卷8 世宗紀8 永平 元年(508). 기사에서는 ‘斯羅’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단 이들이 신라가 아닌 서역의 한 국가라는 반론도 있다(이문기, 「6세기 신라 ‘대왕’의 성립과 그 국제적 계기」,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9, 1988, 333쪽). 이는 『삼국지』 위략 서역전에 斯羅가 존재함에 주목한 것이다. 다만 이때의 사라는 이미 300년 전에 사라진 세력이며, 추가 근거로 들었던 『北史』 卷4 魏本紀 景明 3년(502)조의 서역 27국은 실제로 『위서』의 22국과 숫자가 맞지 않다(서영교, 「『삼국지』 위략의 사라국과 위서의 사라 - 6세기 초 나제동맹의 향방과 관련하여-」, 『역사학연구』 59, 2015, 5-16쪽).

109)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문자왕 13년(504), “珂則涉羅所產,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여가 물길(勿吉)에게 쫓겨났다’는 보고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예실불이 사용한 ‘병합’이라는 표현은 실제 백제의 신라 지배를 의미한 다기보다, 물길의 부상으로 인한 북방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고구려가 신라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변명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여전히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¹¹⁰⁾

결국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유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이 온전히 백제 전선으로 집중되면서 백제의 군사적 하중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고구려의 공세를 분산시키고 정세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방책의 일환으로 검토되었던 것이 바로 우산성에 대한 공략이었을 것이다.

다만, 540년 백제가 공격한 우산성을 앞서 살핀 496년의 우산성과 동일한 장소로 비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40년의 시간적 공백과 지리적 거리를 근거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¹¹⁾ 그러나 역설적으로 백제가 감수해야 했던 위험이야말로 두 성이 동일 지점임을 방증하는 유효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만약 540년의 우산성이 단순한 국지적 거점에 불과했다면, 백제가 신라 영토를 우회하는 장거리 원정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무리한 군사 행동을 감행할 이유는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산성의 가치는 고구려의 대응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40년 백제의 포위 공격에, 고구려왕이 정예 기병 5천을 즉시 투입한 것은, 단순한 변방 방어 수준을 상회하는 조치였다. 이는 앞서 확인했듯이 우산성이 고구려의 입장에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를 근거로 우산성을 수도 인근의 황해도 지역에 비정하기도 하나¹¹²⁾, 이는 529년 오곡 전투 패배 이후의 정세를 간과한 것이다. 당시 오곡

110) 498년 사정성 축조와 이어지는 501년 탄현책(炭峴柵) 설치의 나제동맹의 갈등 기조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신라의 가야 진출 등에 대한 백제 측의 경계심과 위기심의 표현에 가까워 이를 동맹의 붕괴 및 파기로 볼 수는 없다.

111) 교전의 형세상 같은 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그러하다(장창은, 앞의 책, 2014, 153쪽 주 119).

112) 김병남, 「백제 성왕대 북방영역 관련 지명의 분석」, 『한국상고사학보』 52, 2006, 18-19쪽.

전투의 여파로 한강 하류 유역에 대한 통제력이 위축되었을 백제가 고구려의 중심 방어선을 돌파하여 평양 외곽으로 진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¹¹³⁾

결국 고구려의 이례적인 대응은 우산성이 지닌 지정학적 가치를 증명하며, 이러한 가치는 540년 백제의 입장에서 원거리 원정의 위험을 상쇄할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백제에서 영월 정양산성에 이르는 물리적 거리는 백제군이 단독으로 극복하기에 여전히 지리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3장에서는 540년 백제의 우산성 공격을 단순한 국지적 충돌이 아닌 기획된 군사 작전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진군 경로와 기동 환경을 검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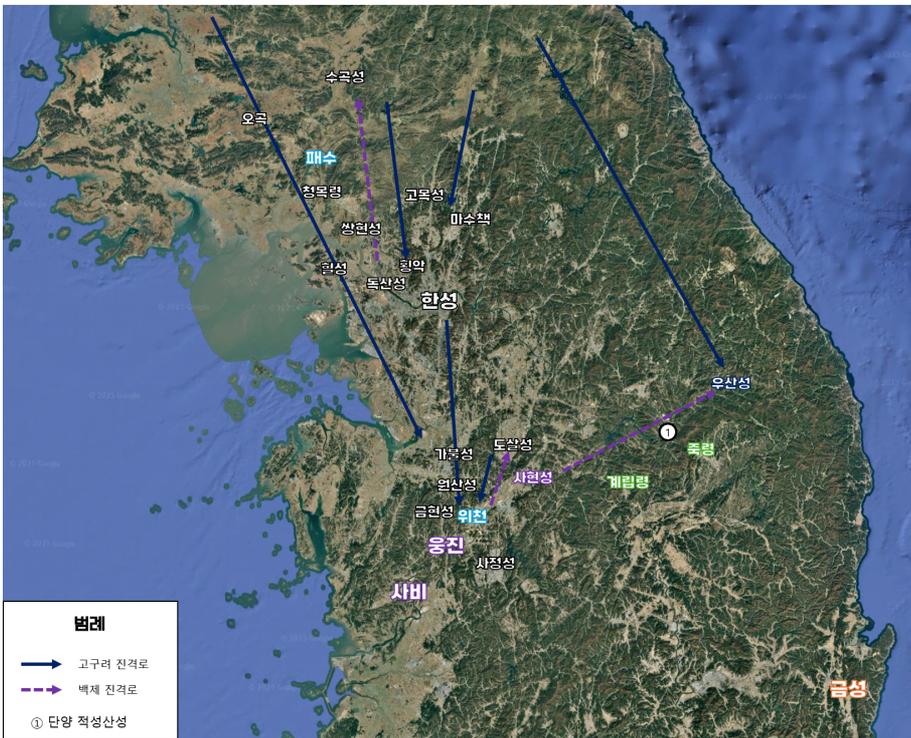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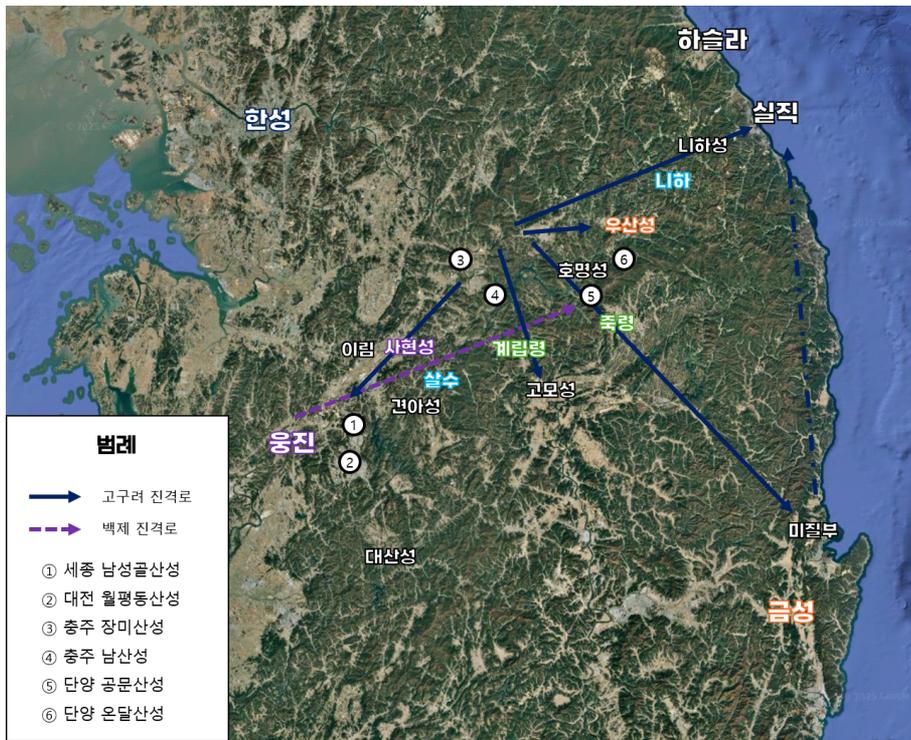
지금의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인 우봉군(牛峯郡)에 비정하였는데, 음운의 유사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113) 수운을 통한 진격을 상정할 수 있다. 단 백제가 그렇게 했어야 할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공하더라도 그를 통해 얻을 이득보다 유지가 더 어려운 작전을 감행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연도(월)	관련국	주요 사건	관련 사료	비고
468(2)	고 → 신	실직성 함락	(신) 자비마립간 11년 ; (고) 장수왕 56년	삼척
468(9)	신	니하성 축조	(신) 자비마립간 11년	정선 송계리산성
480(11)	고 → 신	북쪽 변경 침략	(신) 소지마립간 2년	
481(2)	신	비열성 순수	(신) 소지마립간 3년	안변
481(3)	고 → 신	호명성 등 7성 함락, 미질부 진출 (백제·가야 구원)	(신) 소지마립간 3년	죽령-포항
484(7)	고 → 신	모산성 침공(백제 구원)	(신) 소지마립간 6년	문경 고모산성
489(9,10)	고 → 신	과현 진출 및 호산성 함락	(신) 소지마립간 11년	-
490(9)	백	사현성·이산성 축조	(백) 동성왕 12년	괴산·청안
494(7)	고 → 신	살수·견아성 전투 (백제 구원)	(신) 소지마립간 16년	괴산~청천 → 보은 일대
495(8)	고 → 백	치양성 포위(신라 구원)	(고) 문자왕 4년 ; (백) 동성왕 17년	괴산 일대
496(7)	고 → 신	우산성 1차 침공(격퇴)	(신) 소지마립간 18년 ; (고) 문자왕 5년	영월 정양산성
497(8)	고 → 신	우산성 2차 침공(상실)	(신) 소지마립간 19년 ; (고) 문자왕 6년	-
498(7)	백	사정성 축조	(백) 동성왕 20년	대전 사정동
501(7)	백	탄현책 설치	(백) 동성왕 23년	-
502(11)	백 → 고	백제, 고구려 국경 침범	(고) 문자왕 11년 ; (백) 무령왕 2년	-
503(9)	고 → 백	고목성 공격(백제 방어)	(백) 무령왕 3년	포천 반월산성 → 경기 연천
503(11)	백 → 고	수곡성 공격	(고) 문자왕 12년	-
506(7)	고 → 백	고목성 함락	(백) 무령왕 6년	-
506(11)	고 → 백	대설로 인한 공격 좌절	(고) 문자왕 15년	-
507(5)	백	고목성 남쪽 목책· 장령성 축조	(백) 무령왕 7년	의정부~고양 사이 차단성?
507(10)	고 → 백	한성 공격 시도(백제 방어)	(고) 문자왕 16년 ; (백) 무령왕 7년	북한산
512(9)	고 → 백	가불·원산성 함락, 위천 전투 승리	(고) 문자왕 21년 ; (백) 무령왕 12년	안성천 ~ 목천 분지 → 곡교천
523(2)	백	쌍현성 축조	(백) 무령왕 23년	망해산 ~ 임진강
523(8)	고 → 백	패수 전투(백제 방어)	(고) 안장왕 5년 ; (백) 성왕 원년	예성강
526(10)	백	웅진성 수습, 사정책 축조	(백) 성왕 4년	대전 사정동
529(10)	고 → 백	혈성 함락, 오곡 전투(백제 패배)	(고) 안장왕 11년 ; (백) 성왕 7년	강화도 ~ 황해도 서흥
540(9)	백 → 고	우산성 포위 공격	(고) 안원왕 10년 ; (백) 성왕 18년	영월 정양산성
548(1)	고 → 백	독산성 전투(신라 구원)	(신) 진흥왕 9년 ; (고) 양원왕 4년 ; (백) 성왕 26년	한강 이북
550(1)	백 → 고	도살성 전투(백제 승리)	(신) 진흥왕 11년 ; (고) 양원왕 6년 ; (백) 성왕 28년	진천 대모산성
550(3)	고 → 백	금현성 전투(신라 개입)	(신) 진흥왕 11년 ; (고) 양원왕 6년	세종 금이성

※ 모든 사료는 『삼국사기』의 것을 활용했으므로 따로 서명을 기입하지 않았다.

[표 2]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삼국의 주요 교전 및 축성 현황



[도 1] 496-540년 울산성 주변의 정세 변화

제 3 장 우산성 전투의 지리적 환경과 전개 양상

본 장은 백제의 우산성 공격을 하나의 군사 작전으로서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진군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1절에서는 먼저 주요 거점이자 경유지에 해당하는 충주와 단양 지역의 지배 양상을 고고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격적인 진군로 비정에 앞서, 당시 백제군이 작전을 전개해야 했던 남한강 유역의 역사 지리적 정황과 공간 구조를 확인하는 선행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2절에서는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고지도를 활용하여 영월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을 분석하고, 앞서 확인한 지역별 지배 양상을 토대로 백제군의 구체적인 진군로와 그에 따른 고구려군의 대응 경로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540년의 전역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제 1 절 6세기 전반 충주·단양 지역의 지배 양상

1. 6세기 전반 충주 지역의 지배 양상

495년 고구려 문자왕은 남쪽을 순수한 뒤 바다를 바라본 뒤 돌아왔다(南巡狩, 望海而還).¹¹⁴⁾ 당시 고구려가 신라와의 전선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었던 정세를 고려할 때, 왕의 순수 경로는 남쪽의 충주를 경유하여 동해안을 따라 다시 수도로 복귀하는 여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순수의 목적은 신라 진흥왕의 순수 사례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진흥왕의 순수가 주로 변경 지역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방점이 있었듯이 495년 문자왕의 순수 역시, 적국과 인접한 북쪽 지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행위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고구려의 입장에서 훌륭한 제철 산지이자 수륙 교통의 결절점인 충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114)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7, 문자왕 4년(495), “秋七月, 南巡狩, 望海而還.”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충주 지역 지배가 6세기 전반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충주 일대에 남겨진 고구려계 유적 및 유물의 편년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 지역 내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으로는 남한강 변의 충주 고구려비를 비롯하여 그 인근의 탑평리 유적¹¹⁵⁾, 그리고 그보다 남쪽 달천 유역의 두정리유적, 단월동유적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의 발굴 조사 결과, 해당 유적들에게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들이 대개 5세기 중·후엽에 집중된다는 사실이다.¹¹⁶⁾ 그 상한이 6세기 전반을 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¹¹⁷⁾, 적어도 6세기 전반을 기점으로 유물의 밀도나 지배의 흔적이 이전 시기보다 떨어지는 경향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분과 같은 생활·분묘 유적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지배와 정주가 이루어져야 축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5세기 후반까지는 고구려의 확실한 지배양상이 확인되나, 6세기 전반에 이르러서는 그 지배력이 이전보다 약화되었거나 혹은 통치 방식의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누암리와 탑평리에서는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신라계 유물이 일부 확인된다.¹¹⁸⁾ 이는 고구려의 영향력이 감소한 틈을 타 신라 세력이 충주 지역으로 일시 진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출토된 유물의 수량이 그리 많지 않은 점으로 보아¹¹⁹⁾ 그 이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는 당시 충주 지

115) 탑평리 유적에서는 백제-고구려-신라로 이어지는 점유주체의 변화가 확인된다. 폐기된 백제 주거지 위로 고구려의 구들이 조성되었으며, 그 주변으로는 신라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백제의 경우, 출토유물의 편년을 통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 경으로 비정된 바 있는데, 고분군 역시 사용 시기 차이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원문화유산연구원, 『충주 탑평리 황새머리 고분군 I』, 발굴조사보고서4책, 2025, 411쪽)

116) 충주 시내의 고구려 유적인 단월동과 두정리 고분은 5세기 중엽, 탑평리의 고구려 취락유적은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고 있다.(최종택, 「고구려와 중원문화」, 『융합의 공간, 중원과 고구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2, 45쪽)

117) 예로 들어, 단월동 10호분에서 출토된 구형호를 D형 구연으로 보고, 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양시은, 「중원지역 고구려 유물의 특징과 의미」, 『융합의 공간 중원 - 중원과 고구려』, 중원역사문화총서2, 2022, 131쪽).

118) 윤상덕, 「중원지역 신라토기의 현황과 전개양상」, 『토기로 본 중원문화의 특징과 정체성』, 2021, 86쪽. 논고에서는 전기의 IVb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제시한 편년 안으로 전기는 500~540년에 해당한다.

119) 탑평리 3호 수혈유구와 4호 건물지, 누암리 56호에서 일반적인 1단 투창 유개고배보다 대각

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6세기 전반 충주 지역은 고구려의 지배력이 이전보다 이완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고구려가 충주라는 군사적 요충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겠으나, 적어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외곽 지역이나 경계 지대에서는 감시망의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통제력의 약화는 백제군이 고구려의 방어선이 견고한 남한강 수로 중심부를 피해, 상대적으로 그 감시가 소홀한 충주 외곽의 교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적 여지를 제공했을 것이다.

2. 6세기 전반 단양 지역의 지배 양상

기록에 따르면, 신라가 소백산맥을 넘어 한강유역에 진출한 시기는 6세기 중반 이후이다.¹²⁰⁾ 신라 측 기록에는 단양 지역으로 연결되는 죽령로가 일찍이 개척되었다고 하나¹²¹⁾ 이는 소백산맥 이북 유이민 집단이 남하한 사실이 후일 경주 중심의 신라 세력의 역사와 혼합된 것으로 이해된다.¹²²⁾

그 이후 4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 양국 간의 우호관계가 형성되고 이어지는 400년 고구려의 대규모 군사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때 고구려군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죽령로¹²³⁾를 이용했을 것이며, 경로 상에 있던 단양 지역은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영향력 내에 놓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 낮아진 형태의 고배가 출토되었다. 6세기 중엽에서 분기를 가르는 기준으로 대개 단각고배의 출현이 거론되는 만큼 이러한 토기들은 6세기 중엽 이전의 것들로 이해된다.

120)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十二年辛未(551),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滄·比台角滄·耽知迺滄·非西迺滄·奴夫波珍滄·西力夫波珍滄·比次夫大阿滄·未珍夫阿滄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乘勝, 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121)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아달라이사금 5년(158), “春三月, 開竹嶺.” 해당 기록을 토대로 신라가 2세기 무렵 단양 지역에 진출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있다. 다만 적어도 이 무렵부터 죽령로가 이용되어왔다고는 할 수 있다.

122)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상) - 삼한고 제3부」, 『한국학보』 2, 1976 ;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288·296쪽.

123) 죽령로를 따라 남하가 이루어졌으므로 것으로 이해된다. 그 경로는 평양에서 경주까지 서흥 - 신계 - 평강 - 김화 - 화천 - 춘천 - 홍천 - 횡성 - 원주 - 제천 - 단양 - 죽령 - 영주 - 의성 - 영천으로 이어진다.(서영일, 「광개토태왕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광개토태왕과 고구려 남진정책』, 학연문화사, 2002, 51쪽)

5세기 중반 신라가 자국 영토에서 고구려세력을 소백산맥 이북으로 축출하게 되면서 6세기 중반까지 소백산맥의 계립령과 죽령을 국경으로 삼아 대치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¹²⁴⁾

한편으로는 신라가 죽령을 넘어 남한강 유역에 진출한 시기를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¹²⁵⁾ 주된 논거로는 고고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단양 하방리 고분군에서 이단투창고배(二段透窓高杯)가 출토된 데 주목하여, 주로 6세기 중반 이후 출토되는 단각고배보다 빠른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¹²⁶⁾

단양 하방리 고분군은 적성산성 인근에 위치한 신라 고분군으로, 조사된 고분군 중 3기(나-4·5·7호)는 모두 묘실의 길이와 폭이 4:1 정도가 되는 세장방형 횡구식석곽묘이다. 이와 같은 구조의 석곽묘는 주로 소백산맥 동쪽의 상주나 안동 등지에서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하방리 고분군 또한, 영남지방에서 5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유행한 횡구식석실(곽)묘의 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²⁷⁾

특히 나-4호분에서는 이단투창고배가 출토되었는데, 이는 한강유역에서 보편적으로 출토되는 단각고배(短角高杯)와는 차별점을 보인다.¹²⁸⁾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시기가 6세기 중엽 이후임을 감안하면, 이단투창고배는 단각고배가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의 유적임을 보여주는 유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고분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는 대략 5세기 말 ~ 6세기 초의 것으로 편년된다.¹²⁹⁾

124) 장창은, 「신라 자비~소지왕대 축성·교전지역의 검토와 그 의미」, 『신라사학보』 2, 2004.

125) 서영일, 앞의 논문, 2005, 56~59쪽 ;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 - 「중원 고구려비와 양국 경계의 재검토 -」, 『역사와 현실』 76, 한국역사연구회, 2010 ;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제도의 정비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9~121쪽. ;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 윤성호, 앞의 논문, 2018, 40~44쪽.

126) 장창은, 「4세기 후반 ~ 6세기 중반 단양 지역을 둘러싼 신라와 고구려의 각축」, 『한국고대사 탐구』 21, 2015.

127) 야마모토 타카후미(山本孝文), 「고고자료로 본 남한강 상류지역의 삼국 영역변천」, 『한국상고사학보』 40, 2003, 41쪽 ; 서영일, 앞의 논문, 2005, 56쪽. 본래에는 7세기 중·후반의 것으로 보고되었다(충주박물관, 『단양 하방리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1997, 82쪽).

128) 서영일, 앞의 논문, 2005, 56쪽.

129) 일찍이 신라 전기 토기 3기(5세기 후반)의 후반에 해당하는 토기로 본 견해가 제시되었으며(최병현, 「중원의 신라고분」, 『중원의 고분』,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09, 312~313쪽), 이후

이러한 6세기 중반 이전 진출설은 나-4호분에서 확인된 추가장(追加葬)의 흔적을 통해 한층 보강된다.¹³⁰⁾ 고분의 석실 폐쇄부에서 발견된 뚜껑(蓋)은 6세기 중반 이후의 양식을 보이는데¹³¹⁾, 이는 6세기 전반 경 축조된 고분에 이어 6세기 중반 무렵에 추가장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해당 고분이 적어도 6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축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¹³²⁾

나아가 인근의 단양 당동리 고분군 조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당동리 20호분에서는 이단투창고배가 출토되어 고분의 상한이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었으며¹³³⁾, 묘실의 구조도 죽령 남쪽에 위치한 영주 순흥 읍내리·태장리 고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³⁴⁾ 이로 보아 언급된 두 개의 고분은 6세기 이전 신라의 죽령 이북으로의 진출을 입증하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¹³⁵⁾

물론, 비교적 소규모인 하방리 고분군만으로는 신라의 단양 진출 시기를 소급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¹³⁶⁾ 이들은 지방의 보수성을 고려할 때 이단투창고배가 한동안 잔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거나¹³⁷⁾, 고분 축조 세력을 재지세력이 아닌 사민(徙民)된 세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¹³⁸⁾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1단 투창 고배와 함께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로 편년되었으며(윤상덕, 앞의 논문, 2021, 8쪽). 6세기 초·전엽의 신라의 매장양식을 보여주는 고고자료로 평가된 바가 있다(남익희, 「충북지방 고분출토 신라토기의 편년과 성격」, 『융합의 공간, 中原』, 2023, 199쪽), 지금까지의 견해를 절충하면 대략 5세기 말엽 즉, 490년대의 것으로 좁혀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30) 윤성호, 앞의 논문, 2018, 42쪽.

131) 보주형 손잡이가 부착되고 삼각집선문(三脚集線紋)이 없이 침선 사이에 원점문(圓點文)이 둘러져 있는데, 그 형태상 충주 하구암리 유적 28호분의 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132) 이를 연구에서는 두 세대 이상 거주하면서 분묘를 재활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133) 동양대학교박물관, 『단양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구간 내 단양 당동리 고분군 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2015 이후의 정식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편년되었다.(동양대학교박물관, 『단양 당동리 고분군』, 2019, 18쪽.) 그 하한은 25호분에서 발견한 원점문(圓點文)이 시문된 개를 통해 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었다. 추가로 등고선 방향을 따라 20호분이 25호분보다 낮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다.

134) 김준식·이진혁, 「순흥지역 횡구식석실과 그 축조 집단의 성격」, 『야외고고학』 19, 2014, 108-110쪽.

135) 남익희, 앞의 논문, 2023, 199-200쪽.

136) 장창은, 앞의 논문, 2015, 70쪽 ; 앞의 책, 2020, 90쪽.

137) 아마모토 타카후미, 앞의 논문, 2003, 39쪽 각주 18.

138) 김진영, 「한강유역 신라 석실묘의 구조와 성격」, 『선사와 고대』 27, 2007, 217쪽. 신라가 산성 인근에 고분군을 수반하는 특징을 감안한 것이다(아마모토 타카후미, 앞의 논문, 2003,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역설적으로 5세기 후반 단양 지역에서의 신라 점유가 전면적이거나 안정적인 영토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신라의 진출은 군사적 거점 확보를 위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이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의 반격으로 인해 그 연속성이 단절된 것이다.¹³⁹⁾

한편 6세기 중반 이전 진출했다는 견해 자체는 단양 적성산성의 발굴 결과를 통해서 추가로 보강될 수 있다. 적성산성은 적성비와 함께 이 지역의 지배주체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기존에는 1991년 지표조사 등을 토대로 일반적인 신라 석축 산성으로 이해되어 왔으나¹⁴⁰⁾, 2017년에 실시된 시굴 조사를 통해 기존 견해를 재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확인된 바가 있다.¹⁴¹⁾

조사 결과, 현존하는 석축 성벽의 하단부에서 토축 성벽 또는 토축 흔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굴 트렌치 내부에서 성벽을 쌓기 위해 흙을 다진 판축(版築)의 흔적과 나무 기둥인 영정주(永定柱)의 흔적이 토층 단면상에서 발견되었다.¹⁴²⁾ 이는 단양 적성이 현재의 석축 성벽 이전에 토축 성벽이었거나, 적어도 석축 성벽의 기저부를 토축으로 다진 후 그 위에 석축을 쌓았을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준다.¹⁴³⁾

이에 따라, 단양 적성의 초축 시기를 정선 송계리·고성리 산성과 동일한 5세기 후반 경으로 소급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¹⁴⁴⁾ 관련 유물이 출토되지는

42-43쪽 ; 윤성호, 앞의 논문, 2018, 40쪽 각주 144).

139) 단양 지역의 재지세력을 포섭하고 교류를 통해 세력권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한 견해가 그 러한데(고창민, 앞의 논문, 2024, 339쪽.), 이처럼 사민을 통해 단양 지역의 점유가 전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140) 충북대학교 박물관, 「단양 적성 지표조사보고서」,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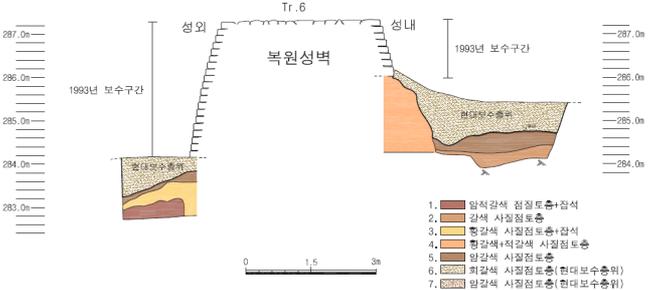
141) 한성문화재연구원, 「단양적성 - 북문일월 보수공사 서벽구간 시굴조사보고서(2015)」, 2017, 81쪽.

142) 총 6개의 트렌치 중 2, 4, 5, 6번 트렌치에서 이러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나머지 2곳(1번 3번)의 트렌치는 1993년 성벽 복원과정에서 석축성벽의 기저부까지 모두 걷어낸 후 정비하였기 때문에 성벽 관련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143) 한성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17, 82쪽. 단양 적성의 석축성벽은 보수 및 정비과정에서 새로 쌓은 것이 되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단양 적성은 석축성벽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144) 양병모, 앞의 논문, 2018, 228~231쪽. 단양 적성을 토석혼축으로 이해하였다.

않았으나, 남한강 남안이라는 축조 위치를 고려할 때 신라에 의한 초축일 가능성이 높다.¹⁴⁵⁾

<p>내벽 (동벽토층)</p>	
<p>내벽 (수혈유구 조사 후)</p>	
<p>성벽 단면도</p>	 <p>1. 암적갈색 점질토층+암석 2. 갈색 사질점토층 3. 황갈색 사질점토층+암석 4. 황갈색+회갈색 사질점토층 5. 암갈색 사질점토층 6. 회갈색 사질점토층(현대보수층위) 7. 암갈색 사질점토층(현대보수층위)</p>

[표 3] 적성산성 시굴트렌치 6(146)

145) 이러한 맥락에서 하방리고분군의 편년과 함께 적성산성의 축조를 6세기 전반기로 소급하기도 하였다(박성현, 앞의 논문, 2010, 230쪽). 단양 지역이 고구려와의 화약을 통해 설정된 정계 안에 포함되었다고 기술한 점은 동의하기 어려우나, 비에 적성이라는 지명이 먼저 등장한다는 점에서 적성이 적성비의 건립보다 선행한다는 시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신라는 5세기 후반 무렵 단양 지역에 진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점유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6세기 중반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양 신라 적성비(이하 적성비)」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성비는 왕(진흥왕)이 伊史夫(異斯夫)를 비롯한 10명의 고위 관료에게 ‘敎’를 내려 공을 세운 ‘也余次’와 그 가족의 공훈을 포상하고, 야이차와 같이 신라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포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석의 건립 배경에 대해, 6세기 중반 이전 진출설의 입장에서 548년 독산성 전투를 전후한 시점에 고구려의 공세를 막아낸 공로를 치하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¹⁴⁷⁾ 비문의 내용상 적성비를 단순히 신라의 단양 지역 진출의 산물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¹⁴⁸⁾ 따라서 이를 고구려의 공세에 맞선 치열한 방어전의 상황과 연결하여 해석한 견해는 충분히 타당하다.

다만 고고학적 측면에서 볼 때, 5세기 후반의 점유 흔적과 6세기 중반의 적성비 사이를 잇는 지속적인 점유 사실을 입증할 만한 확실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신라의 지배가 연속적이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일시적인 단절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성비에 나타난 야이차의 희생(死)¹⁴⁹⁾과 그에 따

146) 한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7.

147) 윤성호, 앞의 논문, 2018, 101-104쪽.

148) 일반적으로 적성비는 단양(적성) 공략의 결과물이며, 그 건립시기를 특정함에 있어, 비차부(比次夫)의 관등 변화에 주목하여 551년 이전으로 본다(변태섭, 「단양 진흥왕 척경비의 건립연대와 성격」, 『사학지』 12, 단국사학회, 1978, 33쪽). 비차부는 적성비에서 ‘阿干支(6위)’, 이후 551년 복진 기사에서는 ‘大阿滄(5위)’로 등장한다. 그런데 대아찬 관등이 적성 공략에 의한 승진 결과라면, 동시기 고두림성(高頭林城) 군주로 추정되는 무력지(武力智)가 551년에도 여전히 아찬의 관등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은 설명하기 어렵다. 무력지가 훗날 迺滄(3위)에 오르는 인물임을 감안할 때, 이는 신분적 한계 때문으로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비문에 열거된 고관들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여 성을 공략한 주역이라기보다, 야이차 등 재지세력의 활약으로 방어에 성공한 직후 왕의 뜻(敎)을 전하고 은전(恩典)을 내리기 위해 파견된 인물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적성비는 중앙군의 정복 활동보다는 재지세력의 조력을 통한 방어전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149) “赤城也余次[]中作善痛懷勳力使死人”로 「적성비」 6행 16자부터 7행 14자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적성의 야이차가 ~중에 옳은 일을 하는데 힘쓰다가 죽은 사람이다’ 정도로 해석된다(장창은, 앞의 논문, 2015, 60쪽). 한편 7행 13자의 ‘死’를 ‘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남풍현, 「단양적성비의 해독시고」, 『사학지』 12(단양신라적성비 특집호), 단국사학회, 1978 ; 다케다 유

른 은전은 신라가 5세기 후반 진출 이후 모종의 이유로 상실했던 지역을 다시금 수복한 직후, 이를 사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다. 즉, 재진출을 통해 지배권을 갖 회복한 상황이었고 단양 적성이 갖는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¹⁵⁰⁾, 고구려의 반격을 막아낸 공로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받았을 수 있는 것이다.¹⁵¹⁾

이와 같은 5세기 후반 진출 및 상실의 과정은 5세기 말에 있었던 고구려의 남진 기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489년의 침공을 481년 이래 죽령 일대에 대한 재침공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이는 신라가 5세기 후반 단양 방면으로 구축해 놓았던 전진 방어선이 고구려의 공세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497년에는 우산성이 함락되면서 신라의 입장에서 죽령과 남한강 수로, 두 개의 진출로가 모두 봉쇄되었다. 이로써 5세기 후반 신라가 일시적으로 확보했던 단양 지역은 다시금 고구려의 통제 하에 편입되었으며, 단양 지역을 상실한 신라는 죽령 이남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가 이 지역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 적성비의 건립시기가 대체로 545~550년 사이로 이해됨을 고려할 때¹⁵²⁾, 그보다 선행되면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548년 독산성 전투 이후와 550년¹⁵³⁾ 도살성·금현성 전투 이후로 보는 견해 등이 있

키오(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朝鮮學會, 1979), 그러나 비문에 갈라진 부분을 합치면, 자획 상 死에 가까우며(김창호, 「단양적성비의 재검토」, 『영남 고고학』 6, 영남고고학회, 1989, 61쪽), 야이차에 대한 은전 대신 그의 가족에 대한 은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맥 상 ‘死’가 맞다고 생각한다.

150) 지리적인 측면에서 소백산맥은 북사면이 남사면보다 경사가 완만하다(최영준, 『영남대로-한국 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이는 북쪽의 세력이 고갯마루까지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의미이므로 신라로서는 죽령을 넘어 적의 진입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단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151) 신라가 직접 고관들을 파견하여 공로자를 크게 치하한 것 또한 상기한 이유에서 비롯된 조치로 해석된다. 신라는 이를 통해 주변 지방민들에게 대고구려전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단양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52) 545년 이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3행 2~5자의 ‘부지’의 결탁부를 ‘居柒’로 추독한 것에서 파생된 견해인데, 정황상의 근거만으로 건립시기를 확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153) 동일하게 550년을 건립시기로 본 견해가 있는데(주보돈, 「단양신라적성비의 재검토」, 『경북사학』 7, 1984), 금현성과 도살성을 비문의 적성과 고두림성에 비정하였다. 이는 사료의 기록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해석한 느낌이 강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다.¹⁵⁴⁾

이 중 후자의 견해는, 당시 고구려가 단양이라는 배후의 위협을 둔 채 백제와의 전면전을 감행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즉, 신라가 이사부의 주도 하에 청주와 충주를 거쳐 순차적으로 적성을 장악한 것이며, 이에 따라 단양을 장악한 시점을 550년 중·후반으로 보았다.

그러나 550년의 전투는 고구려의 의지가 아닌, 백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백제는 진천 대모산성으로 추정되는 도살성을 먼저 타격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신라와 백제 양방향으로 압박을 받는 불리한 형국이었으나, 충주를 거쳐야 하는 단양과 달리 보다 쉽게 영토 깊숙이 복상할 가능성이 있는 백제의 공세가 더 시급하고 직접적인 위협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설령 신라가 배후인 단양에 진출해 있었다 하더라도, 고구려는 충주 지역에서 거점을 사수하는 한편, 경기 지역의 병력을 동원해 백제의 반격을 저지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즉, 신라의 단양 점유가 고구려의 대백제전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절대적 변수로만 보기 어렵다. 이러한 당시의 전황과 적성비의 성격을 고려하면, 신라의 단양 진출은 550년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545년 무렵의 상황에 주목하고자 한다. 545년에 발생한 고구려 내부의 귀족 간 분쟁¹⁵⁵⁾은, 신라가 5세기 말 상실했던 단양 지역을 수복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적·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의 중앙 정계가 혼란에 빠지며 지방 통제력이 이완된 틈을 타, 신라가 5세기 말엽 상실했던 단양 지역을 기습적으로 수복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고구려의 반격을 야이차를 비롯한 재지세력과 함께 격퇴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 단양 신라 적성비를 건립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신라는 5세기 후반 단양 지역을 상실한 이후 545년 고구려 내분기

154) 장창은, 앞의 책, 2020, 92-96쪽 ; 고창민, 앞의 논문, 2024, 349-351쪽.

155) 『일본서기』 권19, 흠명천황 6년(545), “是年 高麗大亂 被誅殺者衆【百濟本記云 十二月甲午 高麗國細群與麤群 戰于宮門 伐鼓戰鬥 細群敗不解兵三日 盡捕誅細群子孫 戊戌 狛國香岡上王薨也】”

를 틈타 재수복하기 전까지, 약 반세기 동안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단양 지역의 지배양상은 540년 백제의 우산성 공격이 감행될 수 있었던 지정학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만약 신라가 단양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백제가 굳이 신라의 영역을 건너뛰어 그보다 상류인 우산성을 공략 목표로 삼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신라가 단양 지역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백제가 남한강 수로를 따라 그 상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우산성을 타격 범위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백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내륙의 거점인 우산성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은 당시의 전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진군로를 복원해봄으로써 백제의 군사적 기동이 가능했던 지리적 여건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백제·고구려의 진군로 비정과 전황의 재구성

540년 우산성 전투의 역사적 성격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격이 감행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백제군이 선택한 구체적인 진군로를 복원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군사 작전에서 진군로의 선택은 지휘부의 작전 목표와 정치적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장이 된 우산성 즉, 영월 일대는 험준한 산악 지형과 수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 속에서 백제가 선택한 경로가 대규모 병력 이동과 군수 물자의 지속적인 조달이 가능한 주 교통로를 확보하며 진군했는지, 아니면 지형적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보급은 어렵지만 적의 감시를 피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샛길을 택했는지에 따라 전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백제군이 평탄한 대로를 선택했다면, 이는 고구려와의 전면적인 충돌을 감수하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으며, 그 목적은 해당 지역의 영구적인 점령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험준한 샛길을 택했다면, 이는 영토의 확장보다는 작전 목표를 타격함으로써 얻는 부수적인 효과에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목표 지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도달해야 하는 군사 작전의 특성상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산악 지형에서의 행군 또한 기존에 형성된 도로나 소로를 활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가 선택한 경로의 유형과 관계없이, 대체로 과거로부터 사람의 통행이 이루어졌던 교통로의 범주 내에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비롯한 조선시대의 고지도와 지리지에 나타난 도로망 정보를 1차적인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후대의 자료를 6세기의 상황에 직접 대입하는 데에는 시기적 간극에 따른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전근대 시기 육상 교통로는 산맥과 하천이라는 자연 지리적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근대적 토목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인간이 이동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로는 지형적 제약 속에서 오랜 기간 지속성을 띠며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주요 간선도로망은 삼국시대 이래의 교통로를 계승하였거나, 적어도 그 골격이 유지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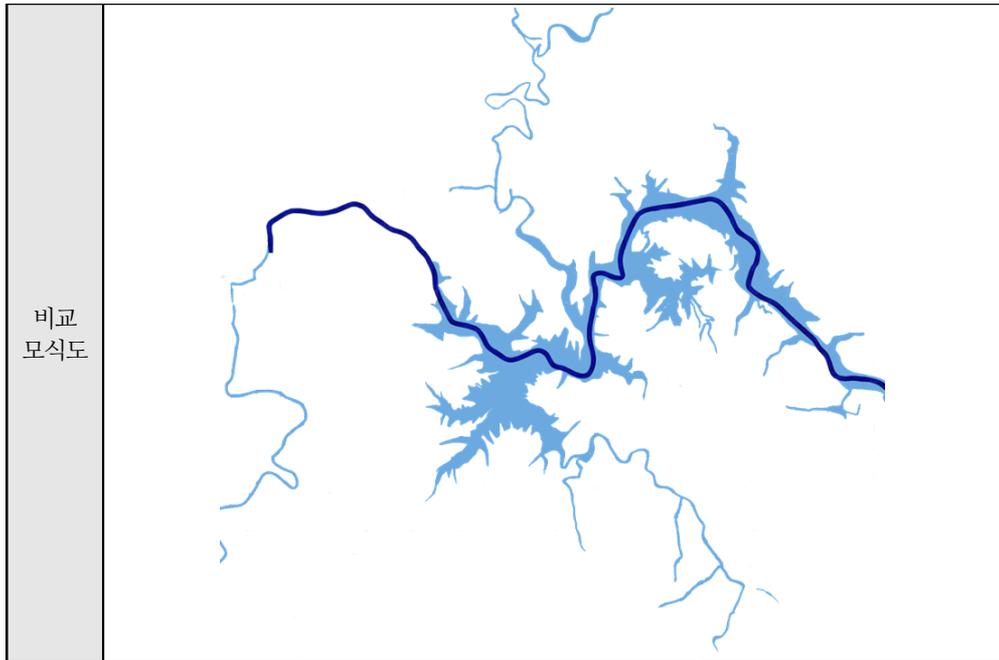
한편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남한강 상류 일대는 현대에 들어 충주댐 건설 등으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고 지형이 수몰되는 등 큰 변화를 겪은 곳이다. 이러한 지형 변화는 아래의 [도 2]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위 상승은 주변 수역(水域)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강변을 따라 형성되었던 교통로는 대부분 수몰(水沒)되어, 현재의 지형도 상으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지도와 개략적인 『대동여지도』 만으로는 당시의 지리적 형세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1910년대 지형도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해당 지형도는 근대적인 측량 기술이 적용되어 상세한 지형 정보를 담고 있고, 수몰로 인해 유실된 지형의 본래 모습을 비교적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당시의 환경을 복원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¹⁵⁶⁾

156) 충주댐이 1985년에 준공되었음을 감안하면 6·70년대의 지형도 또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현대적 토목 공사에 의한 지형 변형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근대 도로망의 흔적이 보다 잘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일제강점기(1910년대) 제작 지형도를 보조 자료로 삼았다.

<p>1910 년대</p>	
<p>1990 년대</p>	



[도 2] 충주댐 건설(1985) 전후 수역 변화 양상¹⁵⁷⁾

이러한 방법론을 토대로 본 절에서는 양국의 진군로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공격자인 백제의 진군로는 영월(우산성) 일대의 지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영월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동시에 동강과 서강이 합류하는 수운의 결절점이자¹⁵⁸⁾, 강릉·춘천·원주 등지로 통하는 내륙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남경(지금의 서울)과 봉화를 잇는 평구도(平丘道)¹⁵⁹⁾의 주요 역참인 정양역(正陽驛)이 우산성 인근에 설치되

157) 원본 : 국토종합플랫폼 1918년 발행 일제 지형도, 1990년대 지형도. 모식도는 필자제작. 모식도에서 옅은 파란색 영역은 1990년대의 확장된 수역을, 진한 파란색 선은 1910년대의 하도(河道)를 나타낸 것이다. 본 도면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본류의 변화 양상을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1910년대 수계는 지류를 생략하고 본류를 중심으로 도식화하였다.

158)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영월 왕검성』, 중원문화연구총서 17책, 2000, 32쪽. 실제로 영월에서 동북 방향으로로는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 정선군을 지나면 강릉과 동해로 통하며, 한편으로는 진부·대관령을 넘는 가장 빠른 통로가 된다. 서강을 거슬러서는 주천·원주, 혹은 평창을 거쳐 춘천 쪽으로 통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찍이 정양산성은 고구려의 성으로서 대신라지역으로의 중요한 교통로임이 강조되기도 하였다(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고고학전서-중세편(고구려)』, 1991, 187쪽).

159) 『고려사』 권82, 지36, 병2, 참역, “平丘道掌三十. 平丘[南京]…延平·溫山·正陽[寧越]…道深[奉化].” 고려는 전국 525개의 역을 22개의 역도로 나누었다. 이 중 평구도(서울-봉화)에 속했으며,

어 운영되기도 했다.¹⁶⁰⁾ 이는 해당 지역이 군사 및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동여지도』를 통해 백제의 동쪽 경계인 괴산에서부터 영월까지의 교통로를 살펴보고, 1910년대 지형도와 현재의 지도를 비교·분석하여 실제 이용했을 경로를 특정해보고자 한다.

반면 방어자인 고구려의 대응 경로를 살펴봄에 있어, 조선시대 역참로(驛站路)¹⁶¹⁾의 분포 양상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병으로 구성된 병력을 동원하여 백제의 침공을 막아냈다. 기병은 병종의 특성상 험준한 산악보다는 신속한 기동이 가능한 평지의 관도(官道)를 활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국내성에서 평양까지의 역 개수가 후대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은 고대와 후대의 도로망이 상당 부분 중첩됨을 방증한다.¹⁶²⁾ 따라서 이러한 연속성을 전제로, 당시의 이동 경로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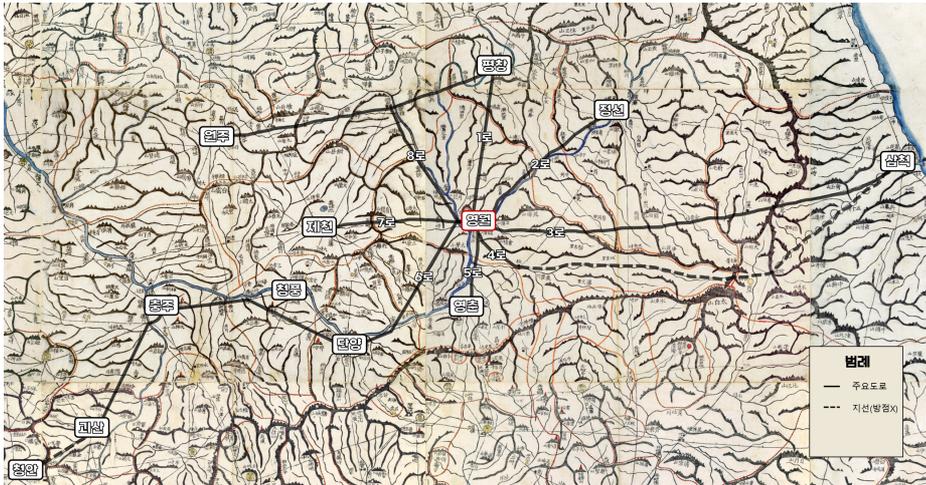
양국의 구체적인 진군로를 추정하기에 앞서, 전장이 되는 영월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통망의 실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격자인 백제나 방어자인 고구려 모두, 영월로 수렴하는 도로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동여지도』를 통해 영월 읍치를 기점으로 한 교통 환경을 검토해 본 결과, 총 8개의 교통로가 방사형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도 3·표 3 참조]

연평·온산·정양 등 세 곳의 주요역이 영월 관내에 포함되어있었다.

160) 정양산성 근방에 위치한 정양역은 이후 공양왕 2년(1390)에 온산역과 통합되었다(『세종실록』 「지리지」 권153, 강원도 원주목 영월군, “本有正陽、溫山二驛、高麗 恭讓王二年庚午, 合爲一、移置于楊等所、改號楊淵.”). 다만 적어도 그 이전까지는 정양역과 그 일대가 교통로의 요충을 차지하는 위치였음을 알 수 있다(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위의 보고서, 2000).

161) 역은 전국의 각 방면으로 뻗어나간 역로망에 설치된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국가의 명령과 공문서의 전달, 변방의 긴급한 군사정보 및 외국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그리고 공공물자의 운송 등을 위하여 설치된 교통 통신 기관이다. 이러한 역참 제도는 본래 중국에서 기인한 것이나, 삼국의 경우에도 그 영향을 받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487년(소지왕 9)에 “사방에 우역을 설치하고 도로를 수리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수용하기 용이했던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도 역제가 운영되었을 것이다(고동환, 『전근대 교통사』, 들녘, 2015, 360쪽).

162) 지리지를 통해 국내성부터 평양까지 17개의 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삼국사기』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 국내성, “鴨綠以北、已降城十一、其一國內城、從平壤至此十七驛”). 주목되는 점은 선사대 초기 압록강 중상류를 개척하면서 활용하기 시작한 교통로(정요근, 「고려-조선 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위에도 이와 동일한 개수의 역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조법중, 「고구려의 우역제와 교통로」, 『한국고대사연구』 63, 2011).



[도 3] 영월 교통로163)

영월 출발	1로(북)	陰谷川을 따라 이동, 分德峙 - 梁山·陰谷岩 - 延平驛 - 高德峙 - 南山 - 평창(平昌)
	2로(북동)	淵村江을 따라 이동 蓬萊山 - 三玉里 - 三仙山 - 玉筍峯·栗峙 - 麻田嶺 - 碧灘驛 - 정선(旌善)
	3로(동)	정양산 남쪽 길을 따라 이동 - 禾羅里 - 鳥洞里 - 上里 - 舍音坨 - 四義 창고 - 靑玉山 - 삼척(三陟)
	4로(남동)	會稽山 - 義豐川을 따라 이동 - 地居里 - 蒼玉峯 - 孤石嶺 - 楡峴(삼척)
	5로(남)	金鳳淵을 따라 이동 - 訥魚灘 - 영춘(永春)
	6로(남서)	淸冷浦 - 加羅山 - 加也川 - 上串(上津)에서 동서로 분리
	6-1로	上串(上津) - 영춘(永春)
	6-2로	上串(上津) - 단양(丹陽)에서 서쪽으로 위아래 분리.
	6-21로	단양 - 燕飛山 - 壽山驛 - 衣峙 - 惶恐灘에서 동서로 분리
	6-211로	(동) 惶恐灘 - 청풍
	6-212로	(서) 惶恐灘 - 黃江 - 桐岳山 - 心項山 - 충주(忠州)
	6-22로	단양 - 玉筍峰 - 因地山 - 청풍(淸風)
	7로(서)	淸冷浦 - 角斤峙 - 大龍山 - 石峙 - 제천(堤川)
	8로(북서)	淸冷浦 - 沙吉峙 - 楊淵驛 - 龍井院 - 球陵山 - 蒲泉[古縣](酒泉)에서 동서로 분리.
8-1로	(동) 蒲泉 - 公龍灘 - 峩峩峙 - 新興驛·津川津(沙川津) - 居瑟岬·麻之津 - 藥水驛 - 평창(平昌)	
8-2로	(서) 蒲泉 - 松峙 - 嫗潭 - 神林驛 - 九龍山 - 過谷 - 원주(原州)	
충주 - 수재	충주 - 兩大峙 - 閱雲川 - 松明山 - 仁山 - 괴산(槐山) - 南川을 따라 이동 - 松峴 - 청안(淸安)	

* 1~8로는 영월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숫자를 부여.

** 괄호 안의 이칭은 대동여지도의 표현.

[표 3] 영월 교통로

[도 3]과 [표 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영월을 기점으로 한 교통망은 평창,

163) 원본 : 『大東輿地圖』, 필자 제작.

정선, 삼척, 영춘, 단양, 청풍, 충주, 제천, 원주 등 인접한 지역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540년의 전황을 재구성함에 있어, 영월에서 뺀어 나가는 이 모든 경로를 당시의 유효한 진군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선과 삼척 방면으로 향하는 2·3·4로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당시 고구려가 우산성을 넘어 동해안 방면으로 추가 진출을 시도한 정황이 없는 한, 해당 지역은 신라의 영향권에 속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제와 고구려 양 측의 진군로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논외로 한다.

남은 5개의 교통로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영월에서 남서쪽으로 뺀어 충주와 단양 방면으로 연결되는 경로, 즉 『대동여지도』상의 [6로]이다. 이 경로는 영월에서 출발하여 단양을 거쳐 충주 남단으로 이어지는 남한강 수운 및 육로와 직결되므로, 당시 고구려와 백제 양국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백제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경로는 앞서 표에 제시한 [충주-수재]로를 통해 괴산 및 배후인 청안 지역과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백제의 동쪽 경계가 수재산성을 중심으로 한 청안·괴산 일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만큼, 그들이 영월의 정양산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남서쪽 교통축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이를 진군로 A로 명명하고자 한다.

진군로 A는 남한강 수로와 연계되어 기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충주·단양 지역을 관통해야 하는 만큼 적에게 노출될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 따라서 백제군이 불필요한 조기 교전을 회피하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회 기동을 감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경로가 청안에서 출발하여 충주를 거치지 않고 제천 및 단양 방면으로 직접 진입하는 진군로 B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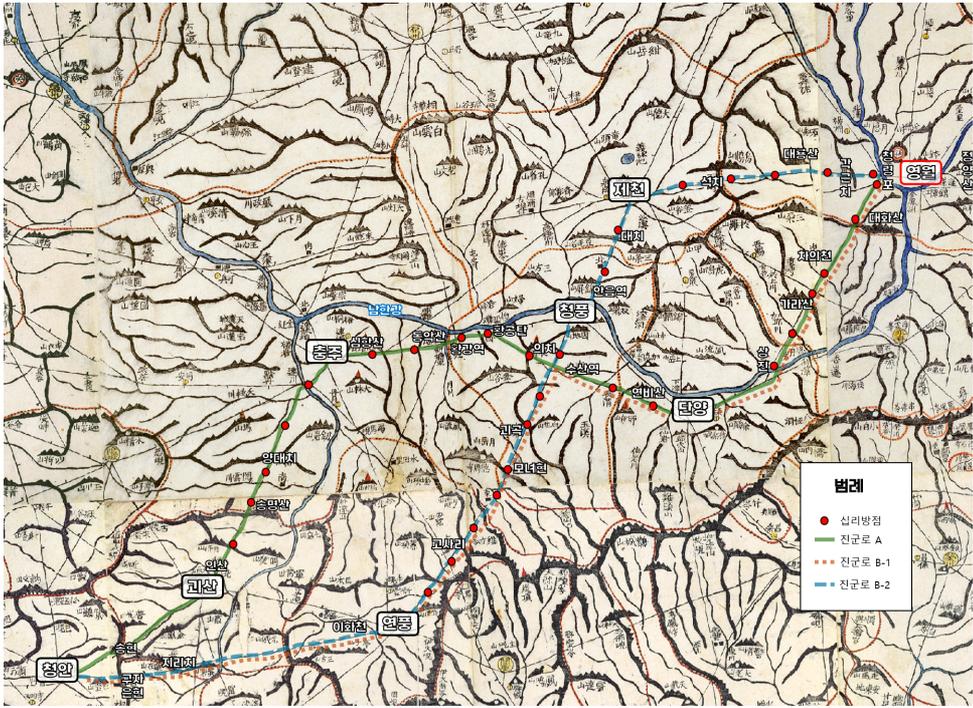
청안 - 단양	청안 - 七寶山の 仇自隱峴 - 龍在山の 止里峙 - 伊火川 - 연풍(延豊) - 公正山 - 古沙里 - 槐谷 - 청풍 - [6-21로]와 壽山驛 부근에서 교차 - 단양
청안 - 제천	청안 - 七寶山の 仇自隱峴 - 龍在山の 止里峙 - 伊火川 - 연풍(延豊) - 公正山 - 古沙里 - 槐谷 - 청풍 - 安陰驛 - 大峙 - 제천
제천 - 영춘	제천 - 沙溪 - 蘆院峙 - 吾賜驛 - 重峙 - 車衣川 - 毘麻羅山 - 영춘

[표 4] 충주 우회 경로

그러나 단순히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회로(진군로 B)의 가치를 단정할 수는 없다. 우회 기동은 단어 그대로 적의 주요 거점을 피해서 가는 만큼 이동 거리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만약 지형이 예상보다 험준해 이동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된다면, 이는 우회 기동을 통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경로가 실제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선택지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대동여지도 상의 경로를 바탕으로 각 진군로의 직선거리와 실제 도보거리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굴곡도¹⁶⁴⁾를 분석하여 기동의 효율성을 수치화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 5·표 5 참조]

164) 굴곡도는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인 직선거리 대비, 지형에 따라 실제로 이동해야 하는 도보 거리가 얼마나 더 긴지를 비율로 나타낸 값이다(도보거리/직선거리).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직선에 가깝고, 클수록 험준하거나 우회하는 경로임을 의미한다.



[도 5] 진군로 A·B

-	경로	직선거리	도보거리	굴곡도
A	청안 - 괴산 - 충주 - 단양 - 영월	99.4km	149.5km	1.5
B-1	청안 - 연풍 - 청풍 - 단양 - 영월	101.4km	190.8km	1.88
B-2	청안 - 연풍 - 청풍 - 제천 - (영춘) - 영월	114.2km	189km	1.65

[표 5] 진군로 A·B 비교¹⁶⁵⁾

진군로 A와 이를 우회하는 진군로 B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보거리와 굴곡도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진군로 B는 진군로 A에 비하여 두 지표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회 이동 시 물리적인 이동 거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경로의 험준함으로 인해 목표에 도달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증가함을 의미한다.

특히 『대동여지도』상의 방점 표기 양상을 통해 도로의 위계 차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 방점이 기록된 진군로 A와 달리, 진군로 B는 방점이 표기되지 않은 구간이 상당수 존재한다. 통상 『대동여지도』의 방점이 평균 2.5cm을 기준으로 지형의 험준함에 따라 그 간격이 조절된다는

165) 자세한 내용은 [부표 1·2·3] 참조.

점을 고려하면¹⁶⁶⁾, 이러한 방점의 유무는 대로(大路)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는 우회로가 갖는 태생적인 지리적 한계일 수 있으나, 신속한 작전 수행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¹⁶⁷⁾ 설령 진군로 B-2가 진군로 B-1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할지라도, 진군로 A와의 절대적인 도보거리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당시 보병의 행군거리가 1솥(약 15km)임을 감안할 때¹⁶⁸⁾, 단순한 교전 회피를 위해 진군로 A 대비 상당한 거리 차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군로 B를 선택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진군로 B는 진군로 A에 비해 거리의 손실을 상쇄할 만한 뚜렷한 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군로 추정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 진군로 B의 낮은 효율성을 초래한 주된 요인은 험준한 연풍-청풍로 구간임이 확인된다. 이에 비효율적인 해당 경로를 배제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천-영월로를 결합한 진군로 C를 새롭게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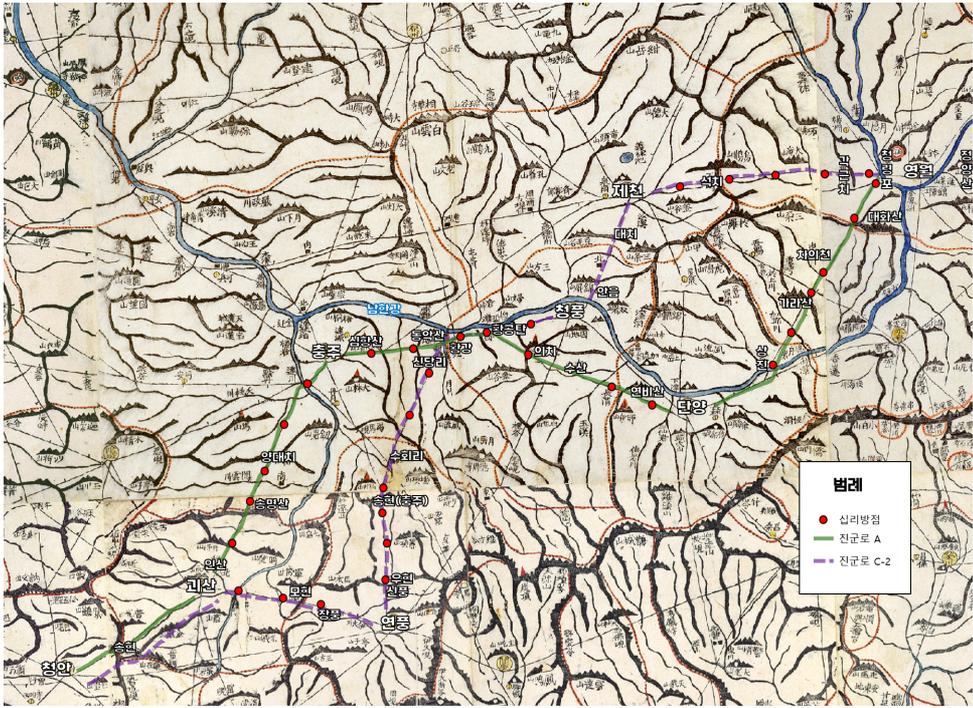
특히 제천-영월로는 굴곡도 1.05[부표 3 참조]에 불과하여, 검토된 모든 경로 중 지형적 제약이 가장 적어 신속한 기동이 가능한 구간으로 이해된다. 진군로 C는 세부 경유지에 따라 다시 C-1과 C-2로 나뉘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도 6·표 6 참조].

166) 신동천, 「정보 디자인의 관점으로 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24쪽.

167) B-1의 경우, 청안-연풍-청풍까지의 직선 및 도보거리는 각각 58.9km, 117km로 전체 거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B-2에서 제천 - 영춘 - 영월로를 상정한 B-21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직선거리 113.9km, 도보거리 207km, 굴곡도 1.82로 나와 오히려 도보거리가 더 상승한다.

168) 일반적으로 고대 군인의 1일 행군 거리는 1솥(30里)라고 하는데, 이는 고사성어 ‘退避三舍’의 유래인 『춘추좌전』 僖公 28년조의 내용에서 비롯된다. 당시 췌 文公은 초나라와의 전투에 앞서 과거 초나라왕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退三舍하였다. 여기서 솥은 주둔지를 뜻하며, (『손자 병법』 권7 군쟁편, “凡用兵之法 將受命於君, 舍軍聚衆, 交和而舍, 莫難於軍爭.”) 1사는 군대가 하루에 행군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한다. 또한, 杜預가 집필한 주석서인 『춘추좌전정의』에 따르면 1사는 30里라 하였다. 周대에 1리는 300보(1.6m) 즉 약 500m이므로 30리는 곧 약 15km가 된다.

169) 자세한 내용은 [부표 1·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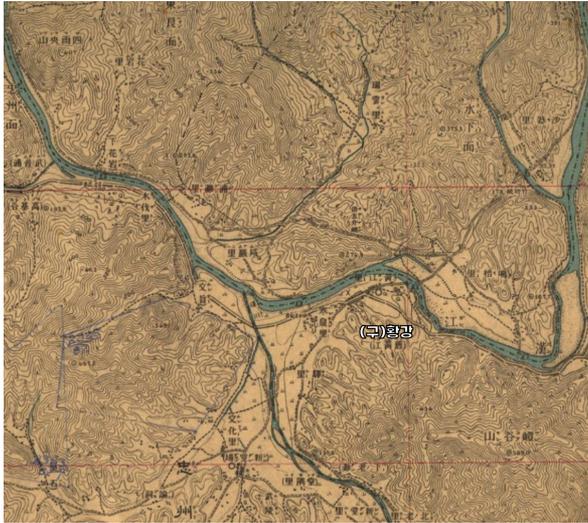
[도기] 진군로 A·C-2

-	경로	직선거리	도보거리	도보거리 / 직선거리
A	청안 - 괴산 - 충주 - 단양 - 영월	99.4km	149.5km	1.5
B-1	청안 - 연풍 - 청풍 - 단양 - 영월	101.4km	190.8km	1.88
B-2	청안 - 연풍 - 청풍 - 제천 - (영춘) - 영월	114.2km	189km	1.65
C-1	청안 - 괴산 - 연풍 - 청풍 - 제천 - 영월	101.4km	190.8km	1.54
C-2	청안 - 괴산 - 연풍 - 황강역 - 청풍 - 제천 - 영월	114.2km	189km	1.48

[표기] 진군로 비교

먼저 C-2는 충주 지역을 관통하지 않는 우회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굴곡도를 보이며, 심지어 진군로 A와 비교했을 때도 그 수치가 낮게 나타난다. 다만 청풍 일대를 관통하는 구간에서 도보거리가 다소 길게 산출된 점은 분석상의 유의가 필요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1985년 충주댐 준공으로 인한 수몰과 도로 이설(移設)로 인해, 과거 평탄했던 도로가 인근의 높은 산지를 지나 우회하는 도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대동여지도와 1910년대 지형도를 교차 검증해 보면, 해당 구간은 남한강 수로를 따라 평탄하게 연결

되어 있는 경로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의 실제 이동거리는 현재 산출한 값보다 크게 단축되었을 것이며, 기동의 편의성 또한 양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 8] 1910년대 황강역 주변 일대¹⁷⁰⁾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공격 목표인 우산성(영월 정양산성)의 지형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우산성이 위치한 영월의 지형을 살펴보면, 주천 일대와 영월 일대에 분지를 이룬 평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영월읍의 배후지인 정양리 역시 이곳에서 동강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정양산성은 남한강 동안의 가파른 암벽 위에 축조되었는데, 산줄기가 강의 흐르는 곡선을 따라 단애를 이루고 있어 서쪽과 남쪽은 절벽 그 자체가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서북쪽 계곡과 동쪽 능선으로 제한된다.¹⁷¹⁾

그 중 정양산성으로 진입하는 경로는 현재 왕검성 주차장을 출발하여 정조대왕태실비를 거쳐 올라가는 등산로가 유일하다.¹⁷²⁾ 그런데, 태실을 지나 능

따라서 백제군이 충주라는 적의 거점을 우회하여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면, 지형적 효율성 면에서 진군로 A에 뒤지지 않는 ‘진군로 C-2’를 공격로로 선택했을 개연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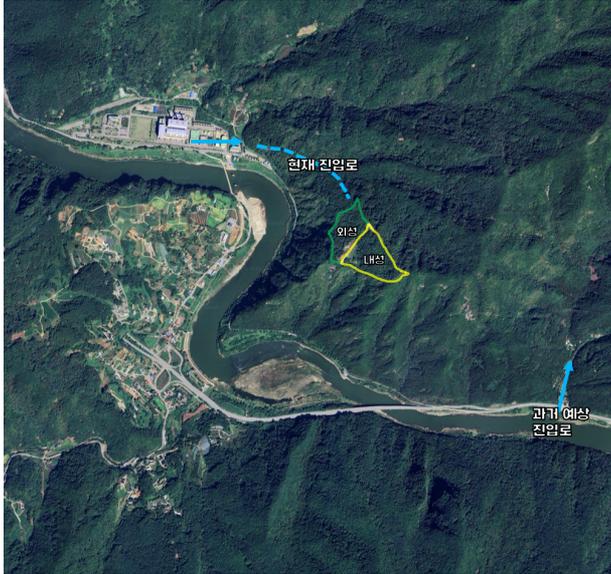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백제군이 이 두 경로 중 어느 쪽을 실제 진군로로 활용했을까. 본고에서는 진군로 C-2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자

170) 원본 : 1910년 충주 지적도, 출처 : 국토정보맵

171)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0.

172) 네이버 지도에서는 도보거리 약 1.1km, 소요시간 약 40분으로 나온다.

선을 따라가더라도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과 만나게 된다. 따라서 당초의 출입로는 정양마을에서 동남쪽으로 난 좁은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⁷³⁾



[도 9] 정양산성의 입지¹⁷⁴⁾

이처럼 진입로가 단 하나뿐이라는 영월 정양산성의 지형적 특성은 공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설령 백제군이 상대적으로 개방된 진군로 A를 통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한정된 상황에서 병력의 우위를 통해 가질 수 있는 효용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진군로 A를 선택

할 경우, 영월에 접근하기 전에 발생할 고구려와의 전면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백제군이 접경지역의 요새를 공략하는 단계적 진출 대신,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정양산성을 직접 타격 목표로 설정한 사실은 작전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준다. 적의 후방에 위치한 전략 거점을 타격하는 작전의 특성상,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규모 병력이 아니라 기동력을 갖춘 소수 병력과 그들이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회로였을 것이다. 이는 당시 백제의 작전 의도가 영토 점령을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사료에서는 당시 백제군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73)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0, 24쪽. 계곡은 건기에는 거의 마른 상태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정양산성의 입지는 강안의 절벽 위에 있는 지형적 특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74) 원본 : 구글어스, 필자 제작

E-1. (540) 가을 9월에 백제가 우산성을 에워쌌다(圍). 왕이 정예기병(精騎) 5,000기를 보내 공격하여 그들을 달아나게 하였다.¹⁷⁵⁾

E-2. (540) 가을 9월에 왕이 장군 연회(燕會)에게 명하여 고구려의 우산성을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不克).¹⁷⁶⁾

위 기록에서 주목되는 표현은 ‘에워쌌다(圍)’이다. 앞서 살펴본 정양산성의 입지를 고려할 때, 강안의 가파른 절벽 위에 축조된 성을 일반적인 공성전처럼 사면에서 완전히 포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성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정양산성의 유일한 진입로는 북쪽으로 난 계곡뿐이므로 공격 측이 이곳을 선점하여 차단할 경우, 수비군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백제군 역시 이러한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부 병력으로 성의 진입로를 봉쇄해 수비군의 발을 묶어두고, 나머지 병력은 고구려의 구원군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천이나 원주 방향의 교통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는 전술을 구사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⁷⁷⁾

이처럼 영월 정양산성 공략의 핵심은 물리적인 포위가 아니라, 주요 길목을 선점하여 고립시키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충주 남단을 지나는 진군로 A보다는 제천¹⁷⁸⁾을 뚫고 가는 C-2로를 선택하는 것이 당시 백제군이 의도했던 작전 성격과도 부합했을 것이다.

175)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7, 안원왕 10년(540), “秋九月, 百濟圍牛山城, 王遣精騎五千, 擊走之.”

176)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4, 성왕 18년(540), “秋九月, 王命將軍燕會, 攻高句麗牛山城, 不克.”

177) 물론 『삼국사기』에 백제군이 성을 ‘에워쌌다(圍)’고 기록된 점을 들어, 이를 대규모 정규군의 기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성의 입지 상 주요 병참선과 진입로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포위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178) 제천 지역의 경우 뚜렷한 관방 유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고구려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비교적 배후지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곳에서 고구려의 이식 한 점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7세기 대의 유물로 비정되고 있어, 당시 지배 양상과 시기상 일치하지 않아, 신라에서 제작한 고구려계 유물로 이해된다(호서문화유산연구원,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제천 교동 산13번지 유적』, 조사보고총서 55,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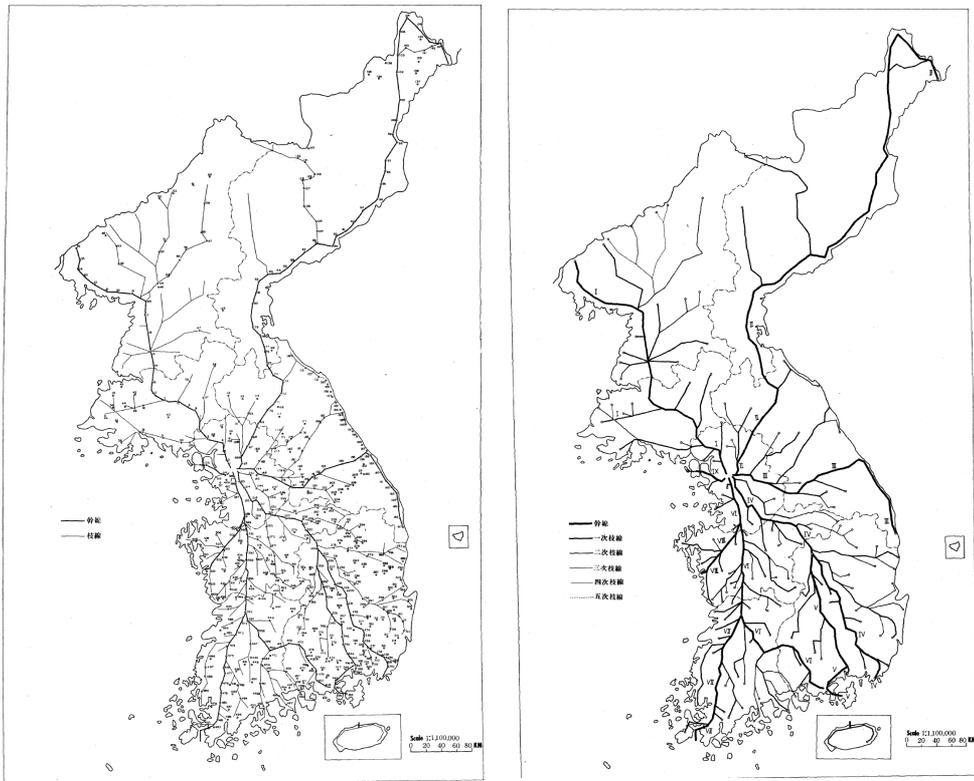
한편 고구려는 백제의 기습적인 포위망 형성에 맞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하게 구원병을 파견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의 출발지는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으로 비정된다. 물론 남한강 유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주 일대에 주둔하던 지방군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료에서는 정예 기병(精騎)이라는 병종과 더불어 ‘王遣’이라는 파견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해당 부대가 국왕의 직접적인 통수권 하에 있는 중앙군이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내 ‘정기’의 용례를 살펴보면, 국왕의 친정이나 왕명에 의한 파견 등 왕실과 직결된 군사 활동에만 제한적으로 등장함이 확인된다.¹⁷⁹⁾

따라서 540년 전투에 투입된 5천의 기병은 평시 수도에 주둔하며 왕실의 호위나 기동 타격을 전담하는 정예부대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구원군의 출발지를 평양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먼저 조선 후기의 역참로를 살펴보면 다음의 지도와 같다.

179)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확인되는 4건의 ‘정기(精騎)’ 관련 기사는 모두 국왕이 주체가 되어 서술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서술어로는 ‘친수(親帥)’, ‘간(簡)’, ‘솔(率)’ 등이 사용되어 국왕이 직접 지휘하는 친정의 성격을 띠거나, 본 기사와 같이 ‘견(遣)’이 쓰인 경우에도 왕명에 의한 파견 형태를 취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부대의 규모이다. 병력이 명시되지 않은 고국천왕 6년(184)의 사례를 제외하면, 중천왕 12년(259), 광개토왕 4년(394), 그리고 본고의 안원왕 10년(540) 사례에서 모두 5천이라는 동일한 편제 단위를 보인다. 3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동일한 부대 단위가 유지된 점은, 이들이 평시에는 수도에 주둔하다가 전시에는 국왕의 친솔 부대 혹은 긴급 구원군으로 전환되는 상설화된 중앙 소속 정예군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타국의 사례로는 신라의 경우 주력 부대이자, 신속하게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대응 전력으로 활용되었으며, 백제의 경우에는 초기 기사의 정기 100명을 제외하곤 왕이 직접 지휘하지는 않으나 주요 임무에 투입된 정황이 확인된다. 한편, 후삼국 시기 왕건이 공산전투(927)에서 견훤을 요격할 때 이끈 병력 또한 ‘정기 5천’이었다는 점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는 고대 국가에서 국왕 직할 정예 부대의 운용 방식과 규모가 일정 부분 정형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한다.

180) 홍경희 외,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역참의 분포와 입지」, 『교육연구지』 10, 1981, 74-75쪽.



[도 10] 조선 후기 역참의 분포와 간선·지선¹⁸⁰⁾

『대동여지도』를 기반으로 역참의 분포와 입지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¹⁸¹⁾, 역참은 크게 9개의 대로로 구성되며, 175개의 간선(幹線)과 130개의 지선(支線)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경로들은 [도5]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시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강 하류에서 충주에 이르는 유역 대부분 고구려가 점유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평양에서 남하하여 한성(한양)을 경유하여 강안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지도 상에 나타난 9개의 대로 중, 평양과 한성을 잇는 I(한양 - 의주)를 통해 남하한 뒤, Ⅲ(한양 - 강릉 - 평해) 혹은 IV(한양 - 동래·부산)을 이용하여 영월 방면으로 진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제시한 표를 바탕으로 고구려군의 남하 경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81) 홍경희 외, 위의 논문, 1981.

	연번	지명 182)	위치 ¹⁸³⁾	비고 ¹⁸⁴⁾
I(한양 - 의주)	15	大同	평양직할시	평양 대동문 안에 위치
	14	生陽	황해북도 중화군	중화 22리에 위치. 기발(騎撥, 말을 타고 가는 파발)
	13	敬天	황해도 황주군 천주면	黃州 서쪽 5리 『대동지지』 편찬 당시 혁폐
	12	洞仙	황해도 봉산군	봉산 북쪽 10리, 岵嶺道에 설치된 후 개설되었으나 이후 혁폐
	11	劍水 (劔水)	황해도 봉산군	봉산 동쪽 30리, 세조 때 岵嶺驛을 이곳으로 옮김
	10	龍泉 (龍川)	황해도 서흥군	서흥 동쪽 1리
	9	安城	황해도 평산군	평산 북쪽 50리
	8	寶山	황해도 평산군	평산 북쪽 20리
	7	金巖	황해도 평산군	평산 남쪽 7리
	6	興義	황해도 금천군	금천 남쪽 15리, 과거에는 臨浪 또는 迎波, 고려 현종 이후로 개칭
	5	靑郊	개성시	개성 (동쪽 방면의) 보정문 밖에 위치
	4	東坡 (西波)	장단군	장단 동남쪽 15리, 과거에는 通波
	3	馬山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파주 서쪽 6리
	2	碧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지	고양 북쪽 2리
1	迎曙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	
III(한양 - 강릉 - 평해)	144	平丘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평구마을	양주목 관아 동남쪽 70리
	146	娛賓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양근군 관아 서쪽 2리
	147	安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원주목 관아 서쪽 30리
	201	神林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지선, 원주목 관아 동쪽 40리
	202	新興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원주목 관아 동쪽 100리
	204	梁淵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영월도호부 관아 서쪽 25리
IV(한양 - 동래·부산)	213	良才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광주부 관아 서쪽 30리

182) 괄호안의 것은 홍영희, 위의 논문, 1981, 75쪽. 괄호 밖은 『대동지지』를 참고한 지명이다.

	214	樂生 (藥生)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광주부 관아 남쪽 30리
	215	驅興 (驅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용인현 관아 남쪽 5리
	216	金嶺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현 관아 동남쪽 30리
	217	佐贊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죽산 북쪽 15리
	218	分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분행마을	죽산도호부 관아 북쪽 10리
	219	無極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관말	음죽현 관아 남쪽 30리
	220	用安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충주목 관아 서쪽 45리
	255	連原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지선, 충주목 관아 동북쪽 5리
	256	黃江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역리	청풍도호부 관아 서쪽 30리
	260	昌樂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죽령 아래에 위치

[표 8] I·Ⅲ·Ⅳ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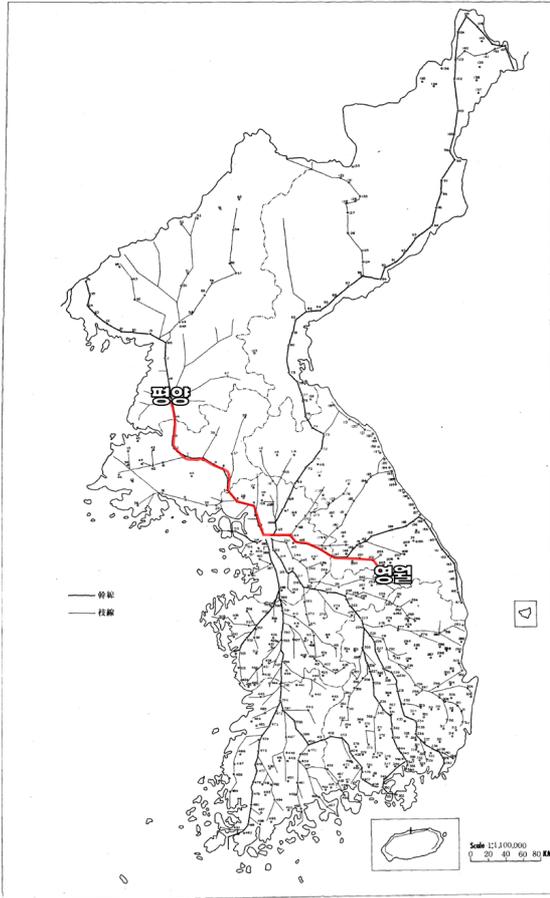
우선 Ⅳ로의 경우, 충주를 경유하여 죽령 이남의 영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영월과는 지리적 괴리가 크다. 구원군이 신속하게 전장에 투입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전장을 지나쳐 남쪽으로 우회하는 이 경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Ⅲ로는 원주 신림역에서 나누어지는 지선을 통해 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의 양연역으로 직결되어 가장 적합하다. 양연역에서 목표인 정양산성까지의 직선거리는 12.2km이다. 이를 종합하여 당시의 기동로를 지도상에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도 11 참조].

183)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주조선왕조실록』 참조.

184) 『대동지지』 참조.

185) 원본 : 홍경희 외, 앞의 논문, 1981, 74쪽 [도 3], 필자 제작.



[도 11] 540년 고구려 추정 진군로¹⁸⁵⁾

실하게 돌파하고 우산성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 조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고구려의 적극적인 조치는 백제군의 방어선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격주’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불극’의 용례는 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¹⁸⁷⁾ 방

186) 격주의 용례는 삼국사기 내에서 총 9건이 확인되며, 그 중 기병을 활용한 사례는 중복을 포함하여 4건이 확인된다. 격주의 활용을 곧 기병의 사용으로 볼 수 없겠으나 기병을 활용한 격주는 기동력을 바탕으로 적을 타격하고 확실하게 전장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된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8년(64) 10월 ;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다루왕 37년(64) ;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파사이사금 15년(94) 2월과 E-1 등이 있다.

187) 불극의 용례는 삼국사기 내에서 총 50건이 확인되며, 공격자가 명확하지 않은 4건의 사례를 제외하고 공격 27회, 수비 19건으로 분류된다. 이 중 수비는 거점의 상실(1), 특정 인물의 전사(死, 3), 패배로 인한 병력의 손실(2), 후속대응의 실패(2) 등이 확인되며, 공격은 후퇴(退, 4), 공격 포기 후 귀환(歸去還, 9), 목표의 변경(移攻通, 4), 후속 대응(又遣, 1), E-2처럼 이후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8) 등이 나타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백제군의 침공로와 이에 대응하는 고구려군의 기동로를 비정해보았다. 이를 사료 E와 교차 검토하여 당시의 전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양국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본기(E-1)에서는 ‘쳐서 달아나게 하였다(擊走)’라 하였고, 백제본기(E-2)에서는 ‘이기지 못하였다(不克)’고 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먼저 고구려 측 기록인 ‘격주’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는 주로 아군이 적의 침입을 방어하거나 포위된 거점을 구원하는 반격 상황에서 사용됨이 확인된다.¹⁸⁶⁾

고구려가 5천의 정예 기병을 파견한 것은, 백제의 포위를 확

어자의 입장에서 ‘불극’은 방어실패로 인한 거점의 상실이나 전사 등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공격자의 입장에서 불극은 사료 E-2처럼 결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회군(還, 歸)’ 혹은 ‘목표 변경(移)’ 등으로 서술되는 경향을 보인다.



[도 12] 540년 추정 전황도¹⁸⁸⁾

입로를 봉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평양에서 급파된 고구려 기병을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백제군은 고구려 기병의 타격에 밀려 포위를 풀고 급히 퇴각하였으나, 전멸에 이르지 않는고 산악 지형을 이용해 신속히 전장을 이탈함으로써 최소한의 전력을 보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전투의 결과 그 자체만으로는 당시 투입된 백제군의 규모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진군로 분석을 통해 도출한 바와 같이, 우회로인 진군로 C-2를 통해 침투한 이들이 대규모 병력이 아닌 소수 정예 부대였을 가능성을 상정한다면, 전투의 결과는 재평가될 수 있다.

즉, 백제군은 비록 우산성 점령이라는 물리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불극’이 곧 부대의 궤멸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공격자에게 ‘불극’은 전투에서는 패배했으나, 주력 부대의 전력을 일정 부분 보존한 채 이루어진 ‘전략적 후퇴’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당시의 전황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된다. 험준한 산악 루트인 C-2를 통해 은밀히 침투한 백제군은 보병 위주의 편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우산성의 진

188) 원본 : 구글어스, 필자 제작

보이나, 적의 주력 부대와 교전하고도 주력을 보존하여 복귀하는 데 성공하였다. 만약 이들의 작전 목표가 애초부터 영토 점령이 아닌 적진 교란과 긴장 조성에 있었다면, 소기의 군사적 성과는 충분히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는 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국경 너머로의 원정을 감행했을까. 다음 장에서는 540년 전투가 발생한 배경과 그 이면에 내재된 백제의 정치적 의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4 장 540년 우산성 전투의 배경과 의미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산성 공격은 백제가 지리적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단행한 군사 작전이었다. 성왕이 이러한 모험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영토 확보라는 이면에, 당시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백제가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백제를 둘러싼 당시의 대내외적 정세를 중심으로 전투의 배경을 재구성하고, 이 사건이 540년 전후 나제 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540년의 우산성 전투의 성격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주도한 백제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격의 배경에 대해, 538년 사비(泗水) 천도 이후 회복된 자신감의 표현¹⁸⁹⁾이거나 혹은 백제의 대고구려 정책이 강경책으로 선회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¹⁹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백제의 사비 천도는 고구려라는 외부 세력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고¹⁹¹⁾, 한성 함락 이후 왕실의 권위 실추와 웅진 시대 잦은 내란으로 인한 왕권 회복의 필요성¹⁹²⁾을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었다. 도읍을 옮기는 대역사는 강력한 왕권¹⁹³⁾과 안정된 국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비 천도는 당시 백제가 이러한 내우외환의 위기를 수습하고 대외적으로 국력을 투사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사비 천도 직후 전개된 우산성 전투를 단순히 회복된 자신감의 발로 혹은 과거의 패전에 대한 설욕전의 성격으로만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189) 박윤선, 앞의 논문, 2007, 53쪽.

190) 박민경, 앞의 논문, 2014, 77쪽.

191)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 중 하나를 꼽자면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任那の滅亡」, 『任那興亡史』東京:吉川弘文館, 1961 등이 있다. 이후 529년 오곡 전투와 연결 지어 금강 상류 유역의 고구려 유물·유적을 그 흔적으로 보고, 이 때문에 위협을 느낀 백제가 천도를 단행한 것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심광주,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224-226쪽.)

192)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147쪽 ; 김주성, 「백제 사비시대 정치사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45쪽. 김주성은 성왕 즉위 직후에도 왕과 귀족세력 사이에 갈등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벗어나 강력한 전제왕권을 형성하기 위해 천도한 것으로 보았다.

193) 문동석, 「4-6세기 백제 지배세력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러한 시각은 백제가 왜 하필 ‘540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국경으로부터 먼 ‘우산성’이라는 특정 공간을 타격 목표로 설정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래의 이해와 같이 우산성 전투를 단순히 대고구려전의 연장에서 파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당시 우산성 전투는 백제가 감행한 기습적인 선제공격이었다. 이는 장기간 고구려에 밀려 수세에 몰려 있던 백제가 전황의 허를 찌른 과감한 결단이었으나, 동시에 고구려를 자극하여 이전과 같은 대규모 반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를 결행하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더불어, 그 위험을 상쇄할 만한 이익의 확신이 전제되었을 것이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대외 정세이다. 결론적으로 540년 무렵 고구려의 서북방 전선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북방의 물길(勿吉)은 6세기 초와 달리 이때에 이르러 북위에 대한 조공 횡수가 급감하는 등¹⁹⁴⁾ 그 세력이 약화되어 고구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낮아진 상태였다.¹⁹⁵⁾

또한 서쪽의 동위(東魏)와는 534년 건국 직후 국교를 재개하고 유인(流人) 송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¹⁹⁶⁾, 유연(柔然)과도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⁹⁷⁾ 즉, 당시 고구려는 특별한 배후의 위협 없이 남방 전선에 군사력을

194) 일찍이 이러한 물길 조공의 양상은 4단계로 구분된 바가 있는데, 3단계인 536~547년에는 대략 3년 간격으로 조공하였다(김탁기, 『고구려의 동북방 경역과 물길 말갈』, 경인문화사, 2011, 80쪽.)

195) 물길을 비롯한 요해 지역의 세력들에 대한 고구려의 통제력이 강화되었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196) 『魏書』 卷71, 列傳59, 江悅之傳, “長史許思祖等以文遙遺愛在民, 復推其子果行州事. 既攝州任, 乃遣使奉表. 莊帝嘉之, 除果通直散騎侍郎, 假節, 龍驤將軍, 行安州事, 當州都督. 既而賊勢轉盛, 臺援不接, 果以阻隔強寇, 內徙無由, 乃攜諸弟并率城民東奔高麗. 天平中(534-537), 詔高麗送果等. 元象中(538-539), 乃得還朝.” 이는 552년에 북제와의 유인송환 문제를 두고 마찰을 벌였던 상황과 대비된다. 유인송환문제가 요청을 받은 당사국에게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면, 외교적 마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당시 양국 관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김진한,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85쪽).

197) 유연과의 관계에 대해 479년 지두우(地豆于) 분할을 공모한 사례가 있다. 이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물길과 북위 간의 조공 차단이라는 이해관계가 유연과 일치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양국이 우호적 관계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309쪽). 이후 유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고구려의 대내 정세이다. 『일본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531년 안장왕(安臧王)이 피살된 정황이¹⁹⁸⁾ 확인된다. 그러나 백제가 이러한 고구려 내부의 혼란을 틈타 침공을 감행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설령 시해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국왕의 실정에 의한 대규모 반란이라기보다는, 지배층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정변의 성격이 강하다.¹⁹⁹⁾

특히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여러 세력의 협력이나 암묵적 동의하에 시해된 것이라는 견해를 수용한다면²⁰⁰⁾, 신왕 즉위 이후 정치적 혼란은 비교적 신속하게 안정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540년 무렵의 고구려는 이러한 내부적 동요가 상당 부분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전투 이전 고구려가 겪었던 자연재해 역시, 고구려만의 특수한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6세기 초반은 동아시아 전역의 기후 환경이 전반적으로 한랭건조 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²⁰¹⁾

오히려 관련 기록에서 재해 사실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구휼 및 진휼 기사가 함께 확인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로 보아 당시 고구려 조정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540년 우산성 공격의 배경을 고구려의 대내외적 상황이라는 외부적 요인에서만 찾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각을 달리하여 우산성 전투의 패배가 541년의 청화 기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

연을 멸망시킨 돌궐과 대립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 이전까지 양국 간 특별한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 『일본서기』 권17, 계체천황 25년(531), “是月 高麗弑其王安”

199) 이와 관련하여 안장왕이 시해된 원인으로 귀족세력의 불만이 공통된다. 그리고 이로 귀결되는 각각의 요소를 나열하면 漢氏 미녀 설화로 비롯되는 한수 북부 토착세력과의 결합(노태돈, 앞의 책, 1999, 463-465쪽), 즉위 초에 행해진 졸본으로의 시조묘 제사를 통해 졸본지역 구귀족세력의 포섭(정원주, 「안장왕의 시조묘 친사와 정국운영」, 『백산학보』 96, 2013, 188-193쪽), 對梁 외교 중심의 대외정책 등(김진한, 앞의 논문, 2007, 122쪽)이 있다.

200) 정원주, 「안원왕대의 정국 운영과 대대로 투쟁」, 『고구려발해연구』 60, 2018.3, 201쪽. 안장왕의 시해 이후 즉위한 안원왕대에는 특정 세력에 좌우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201) 권용휘, 「문화유산을 통한 6세기 경 가야의 쇠퇴 및 멸망에 대한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2025, 417-418쪽.

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투의 실패가 단순한 군사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백제의 대외 정책과 나제 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F. (541)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서 화친을 청하므로 허락하였다.²⁰²⁾

당시 백제와 신라는 가야 지역의 패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다.²⁰³⁾ 특히 541년은 백제가 신라에 화친을 요청한 시점인 동시에, 신라의 팽창에 대하여 ‘임나(任那) 재건’을 목표로 한 회의를 주재한 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시의 청화를 단순히 백제의 굴복이나 패배에 따른 화친 요청으로만 보기는 어렵다.²⁰⁴⁾

만약 당시의 화친이 신라의 우위 속에서 이루어졌고, 백제가 한강 유역 진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감내한 것이라면, 그 직후 전개된 백제의 적극적인 대신라 견제책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백제의 화친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우산성 전투가 벌어졌던 540년은 신라 진흥왕이 불과 7세의 나이로 즉위한 시점이었다.²⁰⁵⁾ 왕이 유년(幼年)이었기에 친정이 불가능하였고, 대신 모후인 지소태후가 섭정(攝政)하였다. 비록 진흥왕의 즉위 배경에 선왕인 법흥왕의 정치적 후원이 있었다 하더라도²⁰⁶⁾, 사후의 왕권 안정까지 완벽하게 담보된

20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진흥왕 2년(541), “百濟遣使請和, 許之.”

203) 531년 백제는 안라에 이르러 걸탁성을 축조하였는데, 안라와 신라가 경계를 접했음을 고려하면 신라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또한 537년에는 왜가 신라가 임나를 침략한다는 명분하에 임나를 지원하였는데, 그 결과로 임나의 평정과 백제를 구원했다는 다소 모순된 결론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왜의 출진 기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나, 당시 왜와 백제의 입장에서 신라의 가야 지역 진출에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다.

204) 백제의 입장에서 그 해 4월 임나복건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 신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실을 미리 알렸던 것이라는 견해(박민경, 앞의 논문, 2014, 77쪽), 또는 신라가 541년 즈음 탁순을 멸망시키고 구례모라성을 점령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위가야, 앞의 논문, 2018, 171쪽).

205) 삼국사기에서는 7세라 기록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삼국유사에서는 진흥왕이 즉위한 나이를 15세로 보고 있다. 다만 창녕 신라 진흥왕적경비의 내용 중 ‘寡人幼年承基, 政委輔弼’을 고려하면, 그가 혼자 정사를 돌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에 즉위했음을 알 수 있다.

206) 김창겸, 「신라 진흥왕의 즉위과정」, 『한국상고사학보』 23, 1996.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신라 조정은 진흥왕이 즉위한 해에 대사(大赦)를 단행하고 문무관의 관작을 올려주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²⁰⁷⁾ 이는 지배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어린 왕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무엇보다 신라는 앞서 523년 백제 성왕의 즉위 직후 고구려의 침공을 받았던 전례²⁰⁸⁾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위 계승이라는 과도기에 놓인 신라로서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으며, 정국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대외적 충돌이나 위협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40년의 우산성 공격이 양국 간 사전 공조 없이 백제의 독자적인 판단과 군사 행동으로 감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간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치열한 대립 구도를 틈타 내부적인 발전에 주력해 왔으며, 가야 지역으로의 세력 확장 또한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고구려 역시 신라 방면의 방어선을 자극하기보다는, 소강상태를 유지하며 주적인 백제와의 전쟁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백제에게 이러한 정세는 우산성 침공을 결행하게 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즉, 우산성 공격은 신라와 고구려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오던 균형 상태를 뒤흔들기 위한 의도가 내재된 행동으로 해석된다.

일찍이 백제는 자국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더불어 신라의 남조 사신 파견을 주선하여 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²⁰⁹⁾ 특히 525년에는 신라에 사신을 파견²¹⁰⁾하여, 즉위 원년에 있었던 고구려의 침공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라와의 군사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신라의 실질적인 지원은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신라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²¹¹⁾ 결

20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원년(540), “八月, 大赦, 賜文武官爵一級.”

20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원년(523), “秋八月, 高句麗兵至溟水, 王命左將志忠, 帥步騎一萬, 出戰退之.”

209) 『梁書』 卷3 本紀3 武帝 下 普通 2년(521), “冬十一月, 百濟·新羅國各遣使獻方物.”; 『梁職貢圖』, “斯羅 止迷 麻連 上己文 下枕羅等附之”

21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년(525), “春二月, 與新羅交聘.”

211) 백제의 입장에서 이러한 신라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다. 한편 6세기 전반에 들어 고구려와 신라는 단순한 소강상태에서 나아가 문물 교류까지 이루어진 상황이 확인된

과적으로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 양국의 소강상태가 해소되기를 희망했으나, 당시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국면 전환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540년의 우산성을 496년의 영월 정양산성과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한다면, 이 지역은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이 맞닿은 접경지대로서 양국 관계의 ‘짜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기에 고구려의 시각에서 볼 때, 백제의 우산성 침공은 예측하기 힘든 파격적인 군사 행동이었다. 백제가 험준한 내륙 깊숙이 위치한 동쪽 변경까지 기습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비상식적인 공격 경로야말로 당시 백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타개책이었다. 통상적인 국경 분쟁 정도로는 고구려와의 평화를 향유하고 있는 신라를 전쟁의 당사자로 끌어들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 양국의 ‘짜기’인 우산성을 직접 타격하여 고구려의 군사적 대응을 신라의 접경지로 집중시킴으로써, 신라가 유지해 온 침묵과 균형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자 했던 것이다.

예상대로 고구려는 백제의 기습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대응 수위는 예상을 상회하는 정예기병 5천이었다. 이는 우산성이 남한강 수운을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만큼, 이곳의 함락이 가져올 파장을 고구려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방증한다.

나아가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이번 침공을 백제의 단독 행동이 아닌, 잠재적인 나제 군사 공조의 재개 신호로 인식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산성이 뚫린다면 고구려가 통제해왔던 신라의 북진 경로까지 함께 열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이례적인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여 백제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백제의 침공은 무위로 돌아갔으나,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고구려가 국경의 방비를 강화하고 경계 태세

다. 순흥의 고구려계 벽화를 비롯하여 신라 내에 남은 여러 고구려의 흔적 등이 그 증거이다. 신라의 입장에서 527년 불교 공인에 맞추어 양의 선진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백제를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얻을 이익이 그리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장 고구려와 대항하여 북진하기보다 고구려와의 교류를 이어가며, 가야 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더 큰 이득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한다.

를 정비함에 따라, 그 군사적 압박감은 자연스럽게 인접한 신라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G. (541) 이사부(異斯夫)를 병부령(兵部令)에 임명하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掌內外兵馬事).²¹²⁾

이러한 위기감은 540년 직후 신라가 취한 일련의 정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41년에는 백제의 청화와 더불어 이사부의 병부령 임명 기사가 확인된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날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²¹³⁾, 사서의 기록 순서를 따른다면 신라는 백제의 화친 요청에 앞서 이사부를 병부령에 임명하는 조치를 선행한 셈이다. 이는 진흥왕 즉위 이후 첫 관직 임명이며, 병부령이 ‘內外兵馬事’를 관장하는 군사 요직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주목할 점은 당시 최고 관직인 상대등의 부재이다. 538년 철부의 사망 이후 상대등 임명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를 단순한 기록의 누락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간주한다면, 당시 군권을 비롯한 국정 의 핵심 권한이 이사부에게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²¹⁴⁾

만약 진흥왕 초기 왕권 강화를 위해 이사부에게 단순히 정치적인 후원자의 역할²¹⁵⁾을 기대했거나 혹은 반대세력 수장에 대한 회유가 목적²¹⁶⁾이었다면, 공석인 상대등에 임명하는 것이 격식에 부합했을 것이다.²¹⁷⁾ 그러나 신라 조

21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2년(541), “拜異斯夫爲兵部令, 掌內外兵馬事.”

213) 541년에는 3월의大雪 기사 이후 이 두 개의 기사만이 등장하는데, 『일본서기』의 是歲와 같은 미상 기사로 이해된다.

214) 이사부를 병부령에 임명한 배경에는 그가 나물왕의 후손이라는 혈연적 요인이라 보는 견해(조범환, 「삼국의 국사편찬과 왕권」, 『국가사연구』 168, 2015, 16쪽)와 지증왕 이후로 쌓아온 군사 경험과 전공이라는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는 견해 등이 있다.(임평섭, 「6세기 신라의 영역화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115쪽.) 전자의 경우 진흥왕의 정치적 입지를 보완할 후견인의 역할, 후자는 군사 총책임자의 역할을 이사부에게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요인 모두 고려되었을 것인데, 병부령의 직무를 생각하면, 후자의 역할을 기대한 바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3년 후인 544년에 병부령의 정원을 늘린 바 있는데, 만약 병부령이라는 고위 관직을 통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215) 김희만, 「신라의 『국사』 편찬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115쪽 ; 조범환, 위의 논문, 2015, 16쪽.

216) 박성희, 「신라 진흥왕 즉위 전후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6, 180쪽.

정은 상대등 대신 실질적인 군사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병부령에 이사부를 임명하였다.

따라서 신라가 이사부라는 경륜(經綸) 높은 장군을 군의 수장으로 등용한 배경에는, 당시의 불안한 대외정세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사부의 병부령 임명은 대대적인 군사 제도 정비와 대외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그 원인에는 우산성 전투가 촉발한 파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는 이사부를 병부령에 임명한 이후, 실질적인 군사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544년에는 병부령의 정원을 1명 추가하였는데²¹⁸⁾, 이는 증가한 군무(軍務)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수도에는 대당(大幢)²¹⁹⁾을, 지방의 주요 거점에는 10정(停)을 배치하는 등 군사 조직을 확충해 나갔다.²²⁰⁾ 이어 549년에는 대당 아래에 대관대감을 두어²²¹⁾ 대당의 長인 장군을 보좌하게 함으로써 지휘 체계의 효율성을 높였다.²²²⁾

주목할 점은 동시기에 추진된 비군사적 정책들 또한, 당시 대외적 위기 상

217) 이에 대해 상대등을 섭정제와 경합·대립하는 존재로 보고, 再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섭정이라는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 찾은 견해도 있다. 동시에 적성비 1행의 ‘大衆等’을 상대등 부재 하에 출현한 최고의 정치조직 혹은 그 중추로 이해하고, 이사부가 이를 통솔한 것이라 보았다(다케다 유키오, 앞의 논문, 1979, 155-156쪽). 상대등을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왕 및 그를 보좌하는 집단과 대립하는 존재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이사부가 국왕을 제외한 제 1의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비문의 내용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비문에서 大衆 가운데 이사부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음을 근거로 그가 대중 가운데 가장 선임인 上大衆(上大等)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병부령과 상대등 두 직책을 겸임하였다고 본 견해가 있다(전덕재, 『이사부의 가계와 정치적 위상』, 『사학연구』 115, 2014, 31-32쪽). 창녕비를 통해 上大等の 존재가 확인되나, 이를 이사부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18)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上, 병부, “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始置. 眞興王五年加一人, 太宗王六年又加一人.”

219)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6정, “六停. 一曰大幢. 眞興王五年始置”

220)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10정, “十停【或云三千幢】. 一曰音里火停, 二曰古良夫里停, 三曰居斯勿停, 衿色靑. 四曰參良火停, 五曰召參停, 六曰未多夫里停, 衿色黑. 七曰南川停, 八曰骨乃斤停, 衿色黃. 九曰伐力川停, 十曰伊火兮停, 衿色綠. 並眞興王五年置.” 10정은 대체로 본서 지리지들을 통해 그 위치를 대응시켜볼 수 있는데, 지금의 남한지역 전체에 넓게 분포해 있어, 544년 당시에 모든 정이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0정 중 실제 신라의 영토 내에 위치했을 정으로는 音里火停(경북 상주 청리면), 伊火兮停(경북 청송 안덕면), 參良火停(대구 달성군 현풍읍)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위치로 볼 때 모두 수도인 경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이해된다.

221)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大官大監, 眞興王十年置.”

222) 『삼국사기』 권40, 잡지9, 무관, “將軍共三十六人. 掌大幢四人.”

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544년 사정부(司正府)에 경(卿) 2인을 두고,²²³⁾ 545년에는 국사(國史)를 편찬하였다.²²⁴⁾ 이는 대외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동요를 차단하고 통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정부는 관리의 감찰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당시 진흥왕이 섭정 체제 하에 있어 왕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므로,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와 감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또한 국사 편찬의 경우, 600년 고구려의 신집(新集) 편찬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7세기 초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 이후 고조된 안팎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국왕 중심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그들의 계보를 기록한 역사서를 편찬했듯이, 신라 역시 우산성 전투 이후의 위기 국면에서 국왕과 귀족 세력 간의 연대를 도모하고 내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사 편찬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백제의 우산성 공격을 사비 천도 이래 최초의 선제공격이라는 상징적 의미로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오히려 이는 신라를 향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성왕의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적 도발(挑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고구려와의 단독 대결에 한계를 느낀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신라의 참전을 강제적으로 유도하여, 그로 인해 발생할 한강 유역 전선의 공백과 약화를 노렸던 것으로 해석된다.

백제의 의도가 실제로 적중했음은 이후 548년 독산성 전투²²⁵⁾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산성은 기록을 근거로 한강 이북에 위치한 성으로 이해된다.²²⁶⁾ 비록 고구려의 침공으로 발발한 방어전이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견

223) 『삼국사기』 권38 잡지7 직관 上 司正府, “卿二人, 眞興王五年置.” 한편, 같은 기록에서 사정부는 태종무열왕 6년(659)에 설치되었다고 하며, 경의 위에는 영(令)이 존재한다. 이로보아 진흥왕 시기 처음으로 관리의 감찰이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원을 두었고, 이후 태종무열왕 시기에 이르러 지위의 상승 및 인원 확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6년(545), “秋七月, 伊滄異斯夫奏曰, “國史者, 記君臣之善惡,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王深然之, 命大阿滄居柴夫等, 廣集文士, 俾之修撰.”

22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9년(548) 2월 ;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3년(548) 정월 ;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26년(548) 정월.

고했던 당시 전선에 백제가 현실적으로 파고들만한 틈이 조성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야 지역을 둘러싼 신라와의 대립을 백제가 541년 화친 요청을 통해 봉합했던 사실 또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신라의 국력에 밀린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우산성 전투로 조성된 긴장 국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실리를 취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담판으로 재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²²⁷⁾

나아가 541년의 청화를 단순히 ‘나제동맹의 강화’로만 보는 시각 역시 확장이 필요하다. 물론 548년 독산성 전투에서 양국이 5세기 이전과 같은 군사 공조를 재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화 당시 대고구려 전선에 대한 공동 대응이 약조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후 553년, 신라에 의한 한강 유역 독점과 이어지는 관산성 전투로 초래된 양국 관계의 파탄은 단순히 영토 배분의 불공정성이라는 단일 요인에만 기인(起因)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동맹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가야 지역 진출을 둘러싸고 지속된 잠재적 갈등, 나제동맹의 실효성에 대한 신라 내부의 회의론²²⁸⁾, 그리고 549년 각덕(覺德)의 환국(還國)²²⁹⁾ 등과 같은 대내외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26) 백제본기 내 ‘한북(漢北)’에 주목하여 그 위치를 찾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고양 행주산성(윤성호, 앞의 논문, 2018, 75-85쪽.)로 보거나, 말갈이 전투에 투입된 정황을 고려하여 철원 등지로 위치시킨 견해(장창은, 앞의 책, 2020, 47쪽.)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백제사서에 나타난 부회로 보고 이를 부정하기도 하는데(전덕재,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의 기본원전과 개관』,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2016), 특정 시간대의 특정 사료에 한정하여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기록을 부정한다면, 자연스럽게 종래의 견해인 예산실에 기울게 된다. 그러나 백제의 수도와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신라의 구원군이 필요했을 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독산성은 수비 측인 백제의 입장에서 구원이 요원한 위치였기에 신라의 구원이 필요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227) 541년 당시 백제와 신라 간의 대담은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추측컨대 본래 신라의 대고구려 방어 거점 중 하나였던 우산성을 탈환하려 했음을 강조하여 동맹의 의미를 상기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야 지역에 대한 분쟁을 잠시 중단하고 대고구려 전선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한다.

228)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신주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20-21쪽.

229) 본래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2021, 14-22쪽의 견해이다. 549년 구법승 각덕의 파견과 양의 문물 수입과정에서 백제의 부용국 인식이 남아 있음을 인지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강 유역 진출을 소망한 것이라 보았다. 이에 대해 정덕기는 국사편찬사실 등을 고려하여 이를 나제동맹 균열의 비군사적 요인으로써 이해하였다(정덕기, 위의 논문, 2022, 20-21쪽).

여기서 중요한 점은 541년의 청화는 우산성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신라의 자발적 필요성 보다는 백제의 요청에 의한 수동적 선택의 성격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 충분한 국력을 축적할 시간을 벌고 이를 동력으로 영토 확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겪은 백제의 위협은 씻을 수 없는 불신을 남겼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신감은 이후 신라가 고구려와 독자적으로 통호(通好)²³⁰하는 데 있어 백제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부담감을 상쇄하는 기제로 작용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6세기 초반의 소강상태를 통해 축적했던 국력의 성장과 안정을 다시금 확보하고자 했던 실리적 선택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541년의 청화는 나제동맹의 강화라는 표면적인 성과 이면에, 이미 향후 발생할 분열의 단초(端初)를 내포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230)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조, “承聖三年九月百濟兵來侵於瑯城, 掠取人男女三萬九千馬八千匹而去. 先是百濟欲與新羅合兵謀伐高麗, 真興曰 “國之興亡在天, 若天未厭高麗則我何敢望焉.” 乃以此言通高麗, 高麗感其言與羅通好. 而百濟怨之故來爾.”

제 5 장 맺음말

본 연구는 540년 백제 성왕이 공격한 우산성을 496년 신라가 고구려에 상실했던 우산성과 동일한 지역으로 비정하고, 이를 분석의 기점으로 삼아 전투의 구체적인 양상과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동안 540년의 전투를 사비 천도 이후 백제의 국력 회복을 과시하기 위한 일회성 사건으로 보거나, 공격 실패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백제가 신라에 화친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수세적인 사건으로 인식하여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우산성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당시 백제·신라·고구려가 처한 대내외적 정세를 고려할 때, 우산성 전투는 공조와 이완을 거쳐 다시금 협력 국면으로 선회했던 양국 관계의 배경과 그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의 전사로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5세기 후반 이래 형성된 전선의 변동과 우산성의 입지, 구체적인 진군로와 전황,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백제의 정치·외교적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5세기 후반 웅진기 백제와 신라의 대고구려 전선 변동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우산성의 위치를 비정하였다. 백제는 475년 한성 함락 이후 혼란을 수습하며 490년 사현성 축조 등을 통해 전선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백제의 동계(東界)는 괴산·청안 일대로 유지되었다.

반면 신라는 니하(남한강 상류) 방어선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496년과 497년 고구려의 공세로 인해 남한강 수로의 핵심 방어 거점인 우산성을 상실하였다. 본고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지리적 입지 조건을 근거로, 당시의 우산성을 현재의 영월 정양산성(正陽山城)으로 비정하였다. 이곳은 남한강 수운과 내륙 교통을 통제하는 결절점이자, 신라의 북진을 차단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이 백제로 집중되게 만드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496년 백제의 구원군 미파병 원인은, 당시 백제의 남방 경략 집중과 가야

지역을 둘러싼 양국 간의 이해 상충에 있었다.

3장에서는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를 활용하여 540년 전투의 지리적 환경과 양국의 진군로를 복원하였다. 분석 결과, 백제군은 충주, 단양 등 고구려의 주력 거점이 위치한 진군로 A를 피하고, 청안-연풍-황강-제천을 잇는 우회로인 진군로 C-2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백제는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은밀히 침투하여 정양산성의 유일한 진입로를 봉쇄하는 전술을 구사했으나, 평양에서 급파된 고구려 국왕 직속의 정예 기병 5천의 개입으로 인해 포위를 풀고 철수하였다. 비록 성을 함락시키지는 못했으나(不克), 백제군은 주력을 보존한 채 전략적 후퇴에 성공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전투의 배경과 그 파급효과를 6세기 전반의 국제 정세 속에서 재해석하였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는 소강상태를 유지하며 암묵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신라는 백제가 직면한 고구려의 위협을 사실상 방관하며 대고구려 공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에 백제 성왕은 고구려와 신라의 접점이자 ‘짜기’인 우산성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고 신라를 강제로 전장에 끌어들이 수 있는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신라의 위기의식은 고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신라는 이러한 대외적 위협에 맞서, 이사부(異斯夫)를 병부령에 임명하고 군사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갔다. 무엇보다 백제는 이러한 긴장 조성을 통해, 신라를 대고구려 전선으로 복귀시키고, 신라의 시선이 북방에도 분산된 틈을 타 가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한편, 한강 이북의 독산성을 점거하는 등 한강 유역 진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540년 우산성 전투는 백제의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도발로 해석되어야 한다. 백제는 지리적으로 격절된 영월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영토 점령이라는 물리적 성과보다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고착화된 균형을 파기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고구려가 이례적으로 정예 기병 5천을 투입하는 즉각적이고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보인 것은, 우산성이 신라의 북진 경로와 직결된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우산성 전투로 고조된 전선의 긴장감은 유년의 나이로 즉위한 진흥왕과 신라 조정에 왕권의 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신라는 대외적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내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41년 백제의 화친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제 주도로 조성된 인위적인 긴장과 강제성은 향후 신라가 백제를 배제하고 한강 유역을 독점하며 고구려와 통호하는 데 있어, 정치적 부담감을 상쇄하는 기제가 되었다. 즉 우산성 전투는 백제의 입장에서 자국에 집중된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분산시키며 대외 주도권을 확보한 계기였으나, 역설적으로 신라에게 자국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백제를 적으로 돌리는 실리적 선택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한 사건이기도 했다.

참 고 문 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 「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地志』

『魏書』

『梁書』

『北史』

『日本書紀』

2. 단행본

괴산군·중원문화재연구원, 『문화유적분포지도-괴산군-』, 2004.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명유래집 - 충청편』, 201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조선고고학전서-중세편(고구려)』, 1991.

고동환, 『전근대 교통사』, 들녘, 2015.

김락기, 『고구려의 동북방 경역과 물길 말갈』, 경인문화사, 2011.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박대재, 『의식과 전쟁 - 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책세상, 2003.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61.
-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朝鮮歷史地理』 上, 남만주 철도주식회사, 1913.
- 양기석,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2001.
- 양기석,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삼국사기』 1, 평범사, 1980.
- 이영식,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1993
- 이병도, 『삼국사기 上』, 을유문화사, 1983.
- 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000.
- 이지린·강인숙, 『고구려역사』, 논장, 1988.
-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경문화사, 2014.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 조상기, 『청주지역 백제토기 전개과정과 고대정치체』, 진인진, 2015.
- 차용걸, 『증평군지』, 2005.
-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 최영준, 『영남대로-한국고도로의 역사지리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키시 토시오(岸俊男),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房, 1966.

3. 학술논문

- 강민식, 「5~6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강민식,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군사』 87, 2013.
- 고창민, 「460~480년대 신라의 대고구려 전쟁과 강원 영서지역 진출」, 『군사』 128, 2023.
- 고창민, 「5세기 후반 ~ 6세기 중반 신라의 남한강 상류 진출 과정」, 『신라사 학보』 62, 2024.
- 공석구, 「'나제동맹'을 다시 검토한다」, 『백제학보』 30, 2019.
- 곽장근, 「금강 상류지역 교통로의 조직망과 재편과정」, 『한국상고사학보』

66, 2009.

김진영, 「웅진기 백제와 가야의 역학관계」, 『백제연구』 44, 2006.

권용휘, 「문화유산을 통한 6세기 경 가야의 쇠퇴 및 멸망에 대한 지리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2025.

김기섭, 「백제 동성왕의 즉위와 정국 변화」, 『한국상고사학보』 50, 2005.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 2021.

김병남, 「백제 동성왕대의 대외 진출과 영역의 확대」, 『한국사상과 문화』 22, 2003.

김병남, 「백제 성왕대 북방영역 관련 지명의 분석」, 『한국상고사학보』 52, 2006.

김병남, 「백제 무령왕 대의 대내외적 상황과 영역의 변화」, 『한국사상과 문화』 3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김병남, 「496년 고구려의 우산성 공격 의미와 나제의 대응」, 『전북사학』 56, 2019.

김병주, 「나제동맹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46, 1984.

김영관, 「고대 청주 지역의 역사적 동향」, 『백산학보』 82, 2008.

김영관, 「웅진시대 백제와 고구려의 전쟁 양상과 영역」,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김영심, 「백제 지방통치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김주성, 「백제 사비시대 정치사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준식·이진혁, 「순흥지역 황구식석실과 그 축조 집단의 성격」, 『야외고고학』 19, 2014.

김진영, 「한강유역 신라 석실묘의 구조와 성격」, 『선사와 고대』 27, 2007.

김진한, 「6세기 전반 고구려의 정국동향과 대외관계」, 『군사』 64, 2007.

김진한,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진형, 「영월 정양산성의 발굴조사 성과와 과제」, 『선사와 고대』 65, 2021.

김창겸, 「신라 진흥왕의 즉위과정」, 『한국상고사학보』 23, 1996.

김창호, 「단양적성비의 재검토」, 『영남고고학』 6, 1989.

- 김태식, 「5~6세기 고구려와 가야의 관계」, 『북방사논총』 11, 2006.
- 김희만, 「신라의 『국사』 편찬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탐구』 12, 2012.
- 남익희, 「충북지방 고분출토 신라토기의 편년과 성격」, 『융합의 공간, 中原-신라의 중원진출과 문화양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3.
- 남풍현, 「단양적성비의 해독시고」, 『사학지』 12, 1978.
- 문동석, 「4-6세기 백제 지배세력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박민경,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성현, 「신라의 거점성 축조와 지방제도 정비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성현, 「6세기 초 고구려·신라의 화약과 정계」, 『역사와 현실』 76, 2010.
- 박성현, 「고구려의 충주 지역 진출 시기와 경로」, 『융합의 공간, 中原, 중원과 고구려』, 중원역사문화총서 2, 2022.
- 박성희, 「신라 진흥왕 즉위 전후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22, 2001.
- 박윤선, 「5세기 중반 ~ 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윤선, 「백제의 對신라 정책」,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2018.
- 박종욱, 「백제 사비기 신라와의 전쟁과 영역 변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진숙, 「백제 동성왕대 대외정책의 변화」, 『백제연구』 32, 2000.
- 박현숙, 「5~6세기 삼국의 접경에 대한 역사지리적 접근」, 『한국고대사연구』 58, 2010.
- 변태섭, 「단양 진흥왕 척경비의 건립연대와 성격」, 『사학지』 12, 1978.
- 사카이 가이조(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조선학보』 54, 1970.
- 서보경, 「5세기 말 ~ 6세기 초 한반도 제국과 왜국의 관계」, 『선사와 고대』 18, 2003.
- 서영교, 「『삼국지』 위략의 사라국과 위서의 사라 - 6세기 초 나제동맹의 향

- 방과 관련하여-], 『역사학연구』 59, 2015.
- 서영일, 「광개토태왕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광개토태왕과 고구려 남진정책』, 학연문화사, 2002.
- 서영일, 「5~6세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博物館紀要』 20,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005.
- 송영근, 「5-6세기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제국과 대산성 전투」, 『지역과 역사』 49, 2021.
- 신광철, 「금이성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대외정책」, 『한국사학보』 74, 2019.
- 신동천, 「정보 디자인의 관점으로 본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수진, 「5세기 후반 가라국의 성장과 대산성 전투의 성격」, 『한국사연구』 172, 2016.
- 심광주, 「남한지역 고구려 성곽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심종훈, 「신라 석축산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손영중, 「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 『역사과학』 85-2, 1985.
- 야마모토 타카후미(山本孝文), 「고고자료로 본 남한강 상류지역의 삼국 영역 변천」, 『한국상고사학보』 40, 2003.
- 양기석, 「한국고대의 중앙정치」, 『국사관논총』 21, 1991.
- 양기석, 「5~6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관계」,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5(신라의 대외관계사 연구), 신라문화선양회, 1994.
-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문화사학』 11·12·13, 1999.
- 양병모, 「단양 온달산성의 축조시기와 운영주체에 대한 재고찰」, 『한국고대사 탐구』 29, 2018.
- 양시은,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 2010.
- 양시은, 「중원지역 고구려 유물의 특징과 의미」, 『융합의 공간 중원 - 중원과 고구려』, 2022.
- 여호규, 「4세기 후반~5세기 초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역사와 현실』 84, 2012.

- 이호근, 「5세기 후반~6세기 중엽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 변천」, 『백제문화』 4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3.
- 위가야,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 체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2009.
- 윤상덕, 「중원지역 신라토기의 현황과 전개양상」, 『토기로 본 중원문화의 특징과 정체성』, 2021.
- 윤성호, 「신라의 한강유역 영역화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윤성호, 「5세기 중후반 신라 소지마립간대의 대고구려 관계」, 『한국학논총』 51, 2019.
- 이강래,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의 군사활동」, 『영토문제연구』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5.
- 이근우,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1997.
-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朝鮮城郭一覽」, 『朝鮮學報』 104, 1982.
- 이도학, 「신라의 북진경략에 관한 신고찰」, 『경주사학』 6, 1988.
- 이문기, 「6세기 신라 ‘대왕’의 성립과 그 국제적 계기」,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9, 1988.
- 이창현·신유리, 「영동지방 삼국시대 주거지 시론」, 『문화사학』 33, 2010.
- 이혁희, 「진안 와정토성의 축조와 성격 재검토」, 『호서고고학』 31, 2014.
- 임평섭, 「6세기 신라의 영역화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 장창은, 「신라 자비~소지왕대 축성·교전지역의 검토와 의미」, 『신라사학보』 2, 2004.
- 장창은, 「4세기 후반 ~ 6세기 중반 단양 지역을 둘러싼 신라와 고구려의 각축」, 『한국고대사탐구』 21, 2015.
- 장창은, 「‘나·제 동맹기’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 변천」, 『한국학논총』 45, 2016.

- 전덕재, 「이사부의 가계와 정치적 위상」, 『사학연구』 115, 2014.
- 전덕재, 「삼국사기 백제본기 기록의 기본원전과 개찬」, 『역사와 담론』 80, 호서사학회, 2016.
-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 경기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58, 2018.
- 정덕기, 「신라 진흥왕대 신주 설치와 그 목적」, 『한국고대사탐구』 42, 2022.
- 정영호, 「고구려의 금강유역진출에 대한 소고」, 『산운사학』 3, 1989.
- 정요근, 「고려-조선 초의 역로망과 역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정운용,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南限」, 『사충』 35, 1989.
- 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 1996.
- 정운용, 「한강유역 회복과 관산성 전투」, 『사비도읍기의 백제』(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5),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2007.
- 정원주, 「안장왕의 시조묘 친사와 정국운영」, 『백산학보』 96, 2013.
- 정원주, 「안원왕대의 정국 운영과 대대로 투쟁」, 『고구려발해연구』 60 , 2018.3
- 정재윤, 「동성왕 23년 정변과 무령왕의 집권」, 『한국사연구』 99·100, 1997.
- 정재윤, 「동성왕의 즉위와 정국 운영」,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 정재윤, 「웅진시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고찰」, 『호서고고학』 4·5, 2001.
- 조범환, 「삼국의 국사편찬과 왕권」, 『국가사연구』 168, 2015.
- 주보돈, 「단양신라적성비의 재검토」, 『경북사학』 7, 1984.
- 주보돈, 「6세기 전반 나제동맹 관계의 향방」,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2018.
-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상)」, 『한국학보』 2, 1976.
-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하)」, 『한국학보』 3, 1976.
- 최관호, 「5세기 후반 신라 북진거점 석축산성의 구조와 성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최관호, 「신라 자비·소지 마립간기 축성의 특징과 목적」, 『한국성곽학보』

32, 2025.

최종택, 「고구려와 중원문화」, 『융합의 공간, 중원과 고구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22.

홍경희 외,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역참의 분포와 입지」, 『교육연구지』 10, 1981.

홍영호, 「신라의 하슬라 경영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4. 발굴보고서

국원문화유산연구원, 『충주 탐평리 황새머리 고분군 I』, 발굴조사보고서 4책, 2025.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송계리산성 발굴조사보고서』, 정선군, 2006a.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고성리산성』, 정선군, 2006b.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임계리 고분군』, 정선군, 2007.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대전 월평동유적』, 1999.

동양대학교박물관, 『단양 도담-영천 간 복선전철구간 내 단양 당동리 고분군 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2015.

[동양대학교박물관](#), 『단양 당동리 고분군』, 2019.

중원문화재연구원, 『청원I·C~부용간 도로공사구간 내 청원 남성골 고구려 유적』, 2008.

충북대학교 박물관, 「단양 적성 지표조사보고서」, 1991.

[충북대학교 박물관](#),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200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영월 왕검성』, 중원문화연구총서 17책, 2000.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청원 구라산성』, 청원군, 2001.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진천 대모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진천군, 1996.

충청문화재연구원, 『대전 월평동산성』, 2003.

충주박물관, 『단양 하방리고분군 발굴조사 보고서』, 1997.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세종 금이성 - 1차 시·발굴조사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2018.

한성문화재연구원, 「단양적성 - 북문일월 보수공사 서벽구간 시굴조사보고서 (2015)」, 2017.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제천 교동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제천 교동 산13번지 유적』, 조사보고총서 55, 2020.

부 록

[부표 1] 진군로 A

[A] : 청안 - 괴산 - 충주 - 단양 - 영월							
연번	기점	경유	종점	직선거리	도보거리	도보거리 / 직선거리	비고
1	淸安	松峴	槐山	14.4km	20km	1.39	방점 없음
2	槐山	仁山驛 松明山 閑雲川 兩大峙	忠州	21.9km	32km	1.46	방점 5개
3	忠州	心項山 桐岳山 黃江驛	惶恐灘	14.6km	(16km)	1.1	방점 4개
4	惶恐灘	衣峙	壽山驛	6km	7.7km	1.28	방점 2개
5	壽山驛	燕飛山	丹陽	11.2km	15km	1.34	방점 2개
6	丹陽	加羅山 上串(上津) 車衣川	淸冷浦	28.8km	56km	1.94	방점 6개
7	淸冷浦	-	寧越	2.5km	2.8km	1.12	-
합계				99.4km	149.5km	1.5	-
[지명별 비정 위치]							
淸安 : 청안동헌(안민헌) / 松峴 : 모래재 / 槐山 : 괴산 동헌 / 仁山驛 : 괴산을 대덕리 / 松明山 : 성불산 / 閑雲川 : 음성천 / 兩大峙 : 대간치 / 忠州 : 관아 공원 / 心項山 : / 桐岳山 : / 黃江驛 : 한수면 역리(수물) / 惶恐灘 : 서창리(덕곡리 마을회관 대체) / 衣峙 : 수산면 오티리 / 壽山驛 : 수산면 수산리(242-4) / 燕飛山 : 제비봉 / 丹陽 : 봉서정 / 加羅山 : 어상천면 울곡리 / 上串(上津) : 단양읍 상진리 / 車衣川 : 사이곡천 / 淸冷浦 : 남면 광천리 / 寧越 : 관풍헌							

※ 표의 직선거리는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각 지점의 비정 위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도보거리의 경우, 네이버 길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추산

※ 도보거리 / 직선거리는 길의 屈曲 정도를 의미. 대동여지도의 방점 간의 간격은 10리(리, 약 4km)를 의미하며, 지도상에서는 평균 2.5cm를 기준으로 그보다 짧을수록 길이 험준함을 의미. 산악지역은 약 1.5cm.

[부표 2] 진군로 B-1

[B-1] : 청안 - 연풍 - 청풍 - 단양 - 영월							
연번	기점	경유	종점	직선거리	도보거리	도보거리 / 직선거리	비고
1	淸安	仇自隱峴 止里峙 伊火川	延豐	32.1km	55km	1.71	방점 없음
2	延豐	古沙里 毛女峴 槐谷	壽山驛	26.8km	62km	2.31	방점 8개
3	壽山驛	燕飛山	丹陽	11.2km	15km	1.34	방점 2개
4	丹陽	加羅山	淸冷浦	28.8km	56km	1.94	방점 6개
5	淸冷浦	-	寧越	2.5km	2.8km	1.12	-
합계				101.4km	190.8km	1.88	-
[지명별 비정 위치]							
淸安 : 청안동헌(안민헌) / 仇自隱峴 : 청안면 문당리 칠보산 일대/ 止里峙 : 괴산 두웅산 / 伊火川 : 쌍천 / 延豐 : 연풍면 삼풍리 / 古沙里 : 원풍면 원풍리(수몰지역, 수안보면 화천리 11로 계산) / 毛女峴 : 덕산면 도기리(수몰지역, 덕산면 도기리 345-6로 계산) / 槐谷 : 수산면 괴곡리(수산면 계란리 산52-2로 계산) / 壽山驛 : 수산면 수산리(242-4) / 燕飛山 : 제비봉 / 丹陽 : 봉서정 / 加羅山 : 여상천면 울곡리 / 淸冷浦 : 남면 광천리 / 寧越 : 관풍헌							

[부표 3] 진군로 B-2

[B-2] : 청안 - 연풍 - 청풍 - 제천[7로] - 영월							
연번	기점	경유	종점	직선거리	도보거리	도보거리 / 직선거리	비고
1	淸安	仇自隱峴 止里峙 伊火川	延豐	32.1km	55km	1.71	방점 없음
2	延豐	古沙里 毛女峴 槐谷	淸風	31.6km	76km	2.4	방점 6개
3	淸風	安陰驛 大峙	堤川	13.5km	19km	1.41	방점 없음
4	堤川	石峙 大龍山 角斤峙 淸冷浦	寧越	37km	39km	1.05	방점 5개
합계				114.2km	189km	1.65	
[지명별 비정 위치]							
淸安 : 청안동헌(안민헌) / 仇自隱峴 : 청안면 문당리 칠보산 일대/ 止里峙 : 괴산 두웅산 / 伊火川 : 쌍천 / 延豐 : 연풍면 삼풍리 / 古沙里 : 원풍면 원풍리(수몰지역, 수안보면 화천리 11로 계산) / 毛女峴 : 덕산면 도기리(수몰지역, 덕산면 도기리 345-6로 계산) / 槐谷 : 수산면 괴곡리(수산면 계란리 산52-2로 계산) / 淸風 : 청풍면 읍리(수몰지역, 경로2에서는 청풍면 신리 산 3-6, 경로 3에서는 청풍면 신리 산3-6으로 계산) / 安陰驛 : 금성면 성내리 / 大峙 : 제천 산곡동 / 堤川 : 영문교회(제천시 중앙로1가) / 石峙 : 송학면 시곡리 / 大龍山 : 오로산 / 角斤峙 : 각한치(남면 광천리) / 淸冷浦 : 남면 광천리 / 寧越 : 관풍헌							

[부표 4] 진군로 C-1

[C-1] : 청안 - 괴산 - 연풍 - 청풍 - 제천 - 영월							
연번	기점	경유	종점	직선거리	도보거리	도보거리 / 직선거리	비고
1	淸安	松峴	槐山	14.4km	20km	1.39	방점 없음
2	槐山	茅峴 長豐 古縣	延豐	19.1km	24km	1.26	방점 4개
3	延豐	古沙里 毛女峴 槐谷	淸風	31.6	76km	2.4	방점 6개
4	淸風	安陰驛 大峙	堤川	13.5km	19km	1.41	방점 없음
5	堤川	石峙 大龍山 角斤峙 淸冷浦	寧越	37km	39km	1.05	방점 4개
합계				115.6km	178km	1.54	
[지명별 비정 위치]							
淸安 : 청안동헌(안민헌) / 松峴 : 모래재 / 槐山 : 괴산 동헌 / 茅峴 : 칠성면 비도리 / 長豐古縣 : 장연면 송덕리 / 延豐 : 연풍면 삼풍리 / 古沙里 : 원풍면 원풍리(수몰지역, 수안보면 화천리 11로 계산) / 毛女峴 : 덕산면 도기리(수몰지역, 덕산면 도기리 345-6로 계산) / 槐谷 : 수산면 괴곡리(수산면 계란리 산52-2로 계산) / 淸風 : 각각 충북 제천시 청풍면 신리 산 3-6, 청풍면 북진리 316-1로 계산 / 安陰驛 : 금성면 성내리 / 大峙 : 제천 산곡동 / 堤川 : 영문교회(제천시 중앙로 1가) / 石峙 : 송학면 시곡리 / 大龍山 : 영월 오로산 / 角斤峙 : 각한치(남면 광천리) / 淸冷浦 : 남면 광천리 / 寧越 : 관풍헌							

[부표 5] 진군로 C-2

[C-2] : 청안 - 괴산 - 연풍 - 황강역 - 청풍 - 제천 - 영월							
연번	기점	경유	종점	직선거리	도보거리	도보거리 / 직선거리	비고
1	清安	松峴	槐山	14.4km	20km	1.39	방점 없음
2	槐山	茅峴 長豊 古縣	延豊	19.1km	24km	1.26	방점 4개
3	延豊	新豊 牛峴 松峴(충주) 水回里 新塘里	黄江驛	21.5km	43km	2	방점 6개
4	黄江驛	-	清風	11.1km	28km	-	방점 2개
5	清風	安陰驛 大峙	堤川	13.5km	19km	1.41	방점 없음
6	堤川	石峙 大龍山 角斤峙 清冷浦	寧越	37km	39km	1.05	방점 4개
합계				116.6km	173km	1.48	
[지명별 비정 위치]							
清安 : 청안동헌(안민헌) / 松峴 : 모래재 / 槐山 : 괴산 동헌 / 茅峴 : 칠성면 비도리 / 長豊古縣 : 장연면 송덕리 / 延豊 : 연풍면 삼풍리 / 新豊 : 신평삼거리(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48-1로 계산) / 牛峴 : 연풍면 원풍리 / 松峴(충주) : 수안보면 온천리 / 水回里 : 수안보면 수회리 / 新塘里 : 살미면 신당리 / 黄江驛 : 충북 제천시 한수면 역리 산4로 계산 / 清風 : 각각 충북 제천시 청풍면 신리 산3-6, 청풍면 북진리 316-1로 계산 / 安陰驛 : 금성면 성내리 / 大峙 : 제천 산곡동 / 堤川 : 영문교회(제천시 중앙로 1가) / 石峙 : 송학면 시곡리 / 大龍山 : 영월 오로산 / 角斤峙 : 각한치(남면 광천리) / 清冷浦 : 남면 광천리 / 寧越 : 관풍헌							

ABSTRACT

Baekje–Silla Relations in the 540s and the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Usanseong

Gu, Nam-Kyu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attack on Usanseong (牛山城) by Baekje (百濟) in 540, challenging the conventional view that it was a mere skirmish or display of confidence after the capital transfer to Sabi. Instead, this research analyzes the event as a strategic military operation,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situation. To this end, the study identifies Usanseong's location, reconstructs the marching routes and battle dynamics, and examines its impact on Silla (新羅)–Baekje relations.

First, based on late 5th-century front-line analysis, Baekje's eastern border is understood to have been around Goesan (槐山) and Cheongan (淸安). Usanseong is identified as Jeongyangsanseong (正陽山城) in Yeongwol (寧越), a vital hub on the upper Namhan River. Originally a Silla base, it was captured by Goguryeo (高句麗) in 497, serving as a strategic wedge blocking Silla's advance. Thus, Baekje's 540 target was

likely this intersection of Goguryeo and Silla influences, representing a lost stronghold for Silla.

Next, using historical maps like the Daedongyeojido (大東輿地圖), marching routes were reconstructed. The analysis suggests Baekje likely avoided the direct, dangerous route through Chungju (忠州), instead selecting a detour via Cheongan and Yeonpung (延平) to enter Yeongwol. Given Jeongyansanseong's natural defenses, the operation is estimated to have been a surprise siege by a mobile elite unit to blockade the entry, rather than a large-scale assault. In response, Goguryeo dispatched 5,000 elite cavalry from Pyongyang (平壤), prompting Baekje to execute a strategic withdrawal to preserve its forces.

Finally, the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context. Around 540, Goguryeo had secured the capacity to focus on the southern front through northern stability and reinforced royal authority, while Silla avoided direct conflict. King Seong(聖王) attacked Usanseong to break this status quo. This strategic provocation aimed to induce a Goguryeo response and drag Silla into the conflict, thereby allowing Baekje to seize the initiative.

Consequently, the attack heightened Silla's crisis, catalyzing its military reorganization and the appointment of Isabu (異斯夫) as Byeongburyeong (兵部令) in 541. The subsequent peace treaty (清和) in 541 was a diplomatic product of this tension, allowing Baekje to disperse Goguryeo's pressure. However, the artificial tension created by Baekje later served as a mechanism that alleviated Silla's political burden when it subsequently excluded Baekje, monopolized the Han River basin, and established ties with Goguryeo. Therefore, the Battle of Usanseong provided the trigger for the division leading to the eventual complete dissolution of the Silla-Baekje alliance.

【Keywords】 Battle of Usanseong (牛山城 戰鬥), King Seong (聖王), King Jinheung (真興王), Yeongwol Jeongyangsanseong Fortress (寧越 正陽山城), Silla-Baekje Alliance (羅濟同盟), Strategic Provocation (戰略的 挑發)